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일제강점기 추자공립보통학교  
학적부로 본 식민지 교육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김 영 민

2012년 8월

# 일제강점기 추자공립보통학교 학적부로 본 식민지 교육

지도교수 전 영 준

김 영 민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김영민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년 8월

Colonial education shown through school registers of  
Chuja elementary school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Kim Young-Min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2. 8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b>I. 서론</b> .....	1
1. 연구목적 및 배경 .....	1
2. 연구동향 및 연구방법 .....	2
<b>II. 추자지역 초등교육시설의 설립 배경</b> .....	6
1. 일제강점기 추자지역의 일본인 이주 배경 .....	6
2. 근대교육의 성립 및 추자지역 사립교육기관의 존재 양상 .....	9
3. 식민지 추자지역 민족 분리교육 실태 및 학교조합과 공립심상소학교 .....	18
<b>III. 학적부로 확인한 추자지역 조선인 초등교육의 실상</b> .....	35
1. 추자공립보통학교의 설립 .....	35
2. 추자공립보통학교의 학적부 변동 상황 .....	39
3. 추자공립보통학교의 교육 실태와 동화정책의 시행 .....	43
<b>IV. 결론</b> .....	76
<b>참고문헌</b> .....	79
<b>부록</b> .....	83
<b>Abstract</b> .....	91

## 표 목차

<표 1> 추자지역 조선인 및 일본인 인구 추이 .....	9
<표 2> 추자지역 서당 현황 .....	13
<표 3> 제주지역 공립보통학교 현황(1926년 당시) .....	18
<표 4> 제주지역 공립심상소학교 현황(1926년 당시) .....	19
<표 5> 추자도 학교조합 현황 .....	21
<표 6> 추자공립심상소학교 상황표 .....	22
<표 7> 추자공립보통학교 상황표 .....	23
<표 8> 추자도학교조합 세입항목(1926) .....	26
<표 9> 추자도학교조합 세출항목(1926) .....	27
<표 10>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졸업인원 .....	38
<표 11>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학적부 양식 변경 사항 .....	41
<표 12>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평균 입학연령 .....	44
<표 13>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입학 전 교육경험 .....	46
<표 14>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보호자의 직업 실태 .....	51
<표 15>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16회 졸업생 보호자 실태 .....	54
<표 16> 신양국민학교 1회 졸업생 보호자 실태 .....	56
<표 17> 신양국민학교 2회 졸업생 보호자 실태 .....	59
<표 18> 신양국민학교 3회 졸업생 보호자 실태 .....	61
<표 19>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졸업생(여학생) 보호자 실태 ..	62
<표 20>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16회 졸업생 인성조사표 .....	65
<표 21>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16회 신체상황 .....	67
<표 22> 신체상황표 기록방식 .....	67
<표 23> 신양국민학교 2회 신체상황표 .....	69
<표 24>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졸업생 수상내역 .....	71

## 그림 목차

### 부록

<그림 1>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학적부(1926~1938) .....	83
<그림 2>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학적부(1939~1946) .....	84
<그림 3>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16회 및 신양국민학교 1회 학적부 부기표(1938~1941) .....	85
<그림 4> 신양국민학교 2, 3회 학적부 부기표(1941~1946) .....	86
<그림 5> 소화원년도 추자도학교조합 세입출결예산보고의 건(1926) .....	87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이주어촌이 형성된 추자지역의 사회구조 속에서 식민지 교육문제와 사회의 상관관계를 추자공립보통학교와 추자심상소학교의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어를 사용하는 자>와 <국어를 사용하지 않은 자>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어 설명된다.<sup>1)</sup> 전자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후자는 식민지 조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을 말한다. 식민지 조선의 교육 자체가 교육차별을 의미하며 이것은 학교의 설립 시기나 재원문제 등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일제당국이 실시한 조선인 교육은 보통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결교육이 목표였으며, 「조선교육령」에서도 확인되듯이 저급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선인을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것에 있었다. 이것은 결국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동화정책의 이중적 적용이었음이 확인되며, 식민지 학교교육은 일제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추자지역은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어장으로, 어로활동에 곤란을 겪던 일본어민들이 새로운 어장확보를 위해 어족자원이 풍부한 추자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인 이주어촌이 형성 되었다.<sup>2)</sup> 그러나 일본인들의 이주는 조선인과 일본인간에 여러 가지 문제

1) 여기에서 말하는 ‘국어’는 일본어를 의미하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교육전체에 대해 적용된다.

2) 1876년 조일수호조약 체결 이후 일본인들의 조선 진출은 활발해졌다. 이는 수산업계에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나타냈다. 당시 일본은 일본연해에서의 남획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일본어민의 생활이 급속히 곤란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조선근해로 진출하여 일본어민의 생활을 개선시키고자 했다. 조선으로 진출한 일본인 어민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를 띠었다. 첫째는 계절마다 조선으로 어로활동을 오는 통어민(通漁民)과 조선으로 이주하여 어획을 하는 이주어민(移住漁民)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이 조선에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점차 이주어민으로 정착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코노 노보카주, 「韓末·日帝下 일본인의 朝鮮水産業 진출과 자본축적-中部幾次郎의 ‘林兼商店’ 경영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6, 참고).

를 발생시켰다.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서 추자지역에 정착한 일본 이주자들은 조선인에 대한 저급한 교육의 실시와 교육적 차별을 요구하였다.

한편, 일제강점기의 이주어촌은 전국적으로 형성되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일본인 이주어촌이 제주면, 서귀포, 성산포, 한림, 추자도 등에 형성되었고, 사회세력화 하였다.<sup>3)</sup> 일제강점기 농어촌의 교육활동은 조선의 전통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서당교육과 더불어 근대 이후의 사립교육기관, 보통학교들이 근간을 이루었다. 이들 교육기관은 일제당국의 간섭과 그에 대한 조선인들의 대응에 따라 존재양상을 달리 했으며,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는 중추적인 교육기관이었다.

지금까지 식민지 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거시적 시각에서 제도적·정책적으로 접근하거나, 식민지 교육과 민족교육을 교육기관에 따라 형태적으로 구분하는 방법 등이었다.<sup>4)</sup>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사회구조 속에서 교육을 실행하는 일제당국과 학교와 교사 및 학생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이 추구하는 식민지 교육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 특정지역의 지역사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연구이면서도, 교육을 수단으로 하여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차별과 동화정책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부각될 것이다. 이는 당시 일제의 교육정책이 조선사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 2. 연구동향 및 연구방법

### 1) 연구동향

- 
- 3) 김수희, 「朝鮮植民地漁業と日本人漁業移民」, 東京經濟大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6, 93쪽, 강만익, 「일제시기 제주도 마을共同牧場組合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15쪽, 재인용; 켈쇼 에스케(善生永助) 저, 최석영 해제, 「생활상태조사 - 수원, 제주」, 『한국근대 민속인류학자료대계』, 민속원 영인, 2008, 116-117쪽.
  - 4) 정근식, 「일제하 전남농촌의 교육실태-망운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무안군 망운지역 농촌사회구조변동연구』,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8, 103-104쪽.

추자지역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역사적·지리적 성격을 모두 포괄하는 개설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sup>5)</sup> 현재까지 추자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역사·문화적 배경을 다루거나, 어선어업의 실태와 특성 및 구한말의 일제신문기사 모음집 등에서 어업침탈 모습 등 추자지역을 외형적으로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았다.<sup>6)</sup> 그러나 추자지역에 대한 교육부분의 연구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제주도내 학교 역사에 대한 연구로는 일본의 교육침탈에 대응하는 과정을 제주교육사의 측면에서 규명하고 있거나,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교육의 제주도 유입경로와 민족교육의 대응 양상을 밝히는 연구가 있다.<sup>7)</sup> 문창규는 구한말부터 조선인들의 교육기관 설립 양상과 함께 일제시기 제주도내의 보통학교 설립 과정과 교육내용의 변화를 분석하고, 일본인의 민족 차별적 교육에 대응하여 조선인들의 민족교육기관 설립 의의를 규명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sup>8)</sup> 그러나 이 연구는 대체로 교육제도에 따른 학교 형성의 측면을 부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설립 과정에서 마을과 교육기관의 상호관계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를 상세히 다루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

다른 지역의 사례이긴 하지만, 김동환은 충청북도 제천공립보통학교의 사회활동 및 교육적 의의를 고찰하였다.<sup>9)</sup> 1920년대 들어 충북지역에서 심화되는 교육열에 대한 요인을 제천공립보통학교의 설립과정과 졸업생의 구성, 사회진출에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사료군(群)을 활용하고 사회집단과 주도

5) 대체로 추자도를 언급한 논저들은 보고서의 성격으로 단순 사실의 나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추자도에 대한 세밀한 연구 진행이 어려웠다는 점도 있지만, 세분화된 주제의 규명에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제주도 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추자도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가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6) 추자도와 관련된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행미, 「추자도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특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명재림, 「日帝強占期 楸子島의 漁民抗爭」,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추자도 학술조사 보고서』, 2006; 정광중·강만익, 「추자도 어선어업의 실태와 특성」, 『논문집』, 제주교육대학교, 2003;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자료집일본신문이 보도한 제주도: 1978~1910』, 제주특별자치도, 2006; 추자도지편찬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1999 등이 있다.

7) 양진건, 「일제하 제주도 교육사 연구」,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회, 1997; 「일제하 제주도 학교설립 운동」,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참고.

8) 문창규,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기관의 형성」,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9) 제천 지역은 교육 선각자들이 구한말 의병활동으로 와해되어 관료적 성격을 지닌 층의 주도로 사립학교가 설립, 공립학교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주도 세력의 성격과 사회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김동환, 「제천공립보통학교 초기 졸업생의 취업 및 사회활동의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적 함의-1923년도 제천공립보통학교 교유회보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 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2002; 「근대 지역교육운동의 주도세력에 대한 일고찰」, 『한국교육사학』, 2002, 참고).

세력을 분석하여 학교 설립의 교육적 의의를 강조했다. 당시에 존립했던 사립찬명학교, 사립정명학교, 사립보흥학교의 설립 및 주도세력의 연계성에 주안점을 두고 학교 설립의 성격 과정과 사회적 배경을 규명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선애는 1921년 9월부터 시작된 충남의 고등보통학교를 설립·유치하는 과정에서 충남 각 지역의 학교유치운동 동향을 분석하여 충남 홍성의 주민들의 학교유치운동이 갖는 다양한 교육사적 의미와 지방정치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sup>10)</sup>

한편,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기관이 다른 점에 착안하여 조선 각 지역에 정착하였던 일본인의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적 교육 실태를 밝힌 연구가 있다. 송지영은 일제강점기 교육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경향을 식민지교육정책에 대응한 조선인의 저항적 민족교육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sup>11)</sup> 조미은은 일제의 조선 침략은 궁극적으로 조선의 일본화를 목표로 둔다고 보고, 이주 일본인들의 정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미래의 일본화된 조선을 이끌 인재의 양성이라는 장기적 식민 계획의 일환으로 식민지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특히, 일제 식민정책의 실행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일본인의 교육, 학교조합 문제를 강조해 규명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sup>12)</sup> 이송희는 개항 이래로 문호를 개방한 부산지역의 일본인 교육 실태를 다루면서, 식민통치 이전부터 조선 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류민단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 교육과 조선인 교육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sup>13)</sup>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앞서 연구동향에서 살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 
- 10) 한선애, 「일제시기 충남 홍성군의 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에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의 교육 차별에 대응하여 교육을 통해 신분을 상승시키고, 성공을 향하는 하나의 표준으로 보았는데 전국적으로 심화된 교육열 현상의 지역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 11) 송지영, 「일제시기 부산부의 학교비와 학교조합의 재정」, 『역사와 경계』 55, 부산경남사학회, 2005에서 대표적인 개항지역인 부산을 한 사례로 하여, 민족차별 교육의 요인을 관공단체조합인 부산부의 학교비와 학교조합입을 강조하고 있다. 두 단체의 운영과정과 재정 분석 및 재원 조달 등의 세부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민족차별의 교육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12)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13) 이송희의 연구는 일제 당국의 학교 부설에 따른 조선인들의 대응, 조선인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있어 앞의 송지영의 연구와는 자세한 비교에 어려운 점이 있다(이송희,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의 초등교육」, 『지역과 역사』 19호, 부경역사연구소, 2006).

그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일제강점기 추자지역의 식민지 교육실상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추자지역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자료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발굴한 사료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학적부, 신양국민학교 연혁을 분석하여 추자지역의 학교운영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아울러 구한말의 「황성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추자도의 사립학교 설립 경위와 사회배경을 살펴본 후, 새롭게 발굴한 국가기록원 소장의 추자도학교조합 문서 및 조선총독부 학무국 문서 외에 추자도의 마을지, 보고서류 등을 활용하여 추자도의 학교 설립 과정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명하고자 한다.<sup>14)</sup>

이러한 연구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첫째, 추자지역에 이주해온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학교설립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 각지에 근대교육의 성립 과정 및 서당과 사립교육기관들의 여러 형태와 변화를 통해 추자지역의 사회배경과 교육상황을 살펴본 후,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공립심상소학교와 조선인 공립보통학교 설립 과정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둘째, 추자공립보통학교의 설립 상황 및 추자지역의 일본인과 조선인 교육 간의 불평등 교육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자지역에서 일어난 교육적 차별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추자지역 조선인 초등교육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학적부를 분석하고, 당시 추자지역의 사회상과 추자지역민에 대해 이루어진 식민지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추자지역에 이주한 일본 어민의 학교조합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차별의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이 도서지역에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일제강점기 교육실상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14) 당시 추자도의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문헌자료로는 『식민지교육자료집성』(조선총독부 학무국 기록)을 볼 수 있으며, 「소화원년도 추자도학교조합 세입출결산 보고의 건(1926)」 등 추자도 학교조합 관계서류에서는 추자지역에 이주한 일본인들이 설립한 추자도학교조합의 운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II. 추자지역 초등교육시설의 설립 배경

### 1. 일제강점기 추자지역의 일본인 이주 배경

추자지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남해안과 제주도를 연결하는 제주해협의 항로에서 중요한 중간기항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추자도는 낙도(落島)라는 지리적 특징상 유배지로도 활용되었는데, 조선후기 및 구한말 시기에 많은 인물들이 추자도로 유배되었다.<sup>15)</sup> 최악의 유배지로 인식되면서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의 새로운 어장개척에 의해 중요 어장이 되었다. 일본인들은 이전에도 추자도에 대한 관심은 많았으며, 1910년 합병이 되면서 본격적인 일본인 이주가 시작된다.

다음은 구한말 어업 침탈기의 추자지역 기사이다.

(가) 소안도(所安島)의 남서쪽에 있으며 완도(莞島)로부터 60해리(浬)이다. 제주도(濟州島)로부터 30해리(浬) 떨어져 있고, 섬의 서안(西岸)에 양항(良港)을 가지고 있다. 목포(木浦), 제주선(濟州線) 및 부산(釜山), 목포(木浦)의 기항지(寄港地)이다. 전도(全島) 암석(巖石)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육산(陸産)은 모자라지만(乏) 연안어족(沿岸魚族)은 풍부하다(富). 상어(鯨), 도미(鯛), 방어(魷), 정어리(鱚), 오징어(烏賊), 고등어(鯖), 해초(海草) 등이 많이 나타난다. 호수(戶數) 530, 인구 2,800여명이 있다.<sup>16)</sup>

(나) 추자면 본면(本面)은 제주항 북쪽에서 28해리(浬) 정도에 있으며, 상도, 하도, 횡간도 등 군도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은 겨우 0.5방리 정도이며 인구는 3,400명, 제주본도의 하나의 큰 부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다. 추자항은 해수가 깊고 만입(灣入)이 양호한 묘지(錨地:정박지)로 되어 있으며, 또 어업근거지로서 저명한 지역으로서, 대서리에는 우편소, 경관주재소, 소학교 등이 있다. 춘추(春秋) 양 계

15) 추자도지편찬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1999, 91-92쪽.

16) 요시다 에이사부로(吉田英三郎), 『조선지하(朝鮮誌下)』: 「所安島の南西に在り莞島より六十浬. 濟州島より三十浬を隔て島の西岸に良港を有す木浦濟州線及び釜山木浦線の寄航地たり全島巖石より成り陸産に乏しきも沿海魚族に富み鱻、鯛、魷、鱚、烏賊、鯖、海草等を多産す戸數五百三十. 人口二千八百餘あり」, 『한국지리풍속지총서』 3, 일한인쇄주식회사 간행, 경인문화사 영인, 2005, 35쪽.

질은 어선이 집중하며 가히 번성(殷盛)함을 보인다.<sup>17)</sup>

(다) 추자도는 인구 약 170~180명이다. 하나의 작은 섬으로서 전도 위엄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전혀 육산물은 나지 않고, 도민 모두 해산에 의지해서 의식(衣食)을 충당하고 있다. 연해 수산물이 풍부해서 부근 어장에 풍부하고 특히 본도는 양호한 묘지(정박지)를 가진 적당한 항만이 있어 제주도 부근 유일의 피난항으로서 제주도 항행의 선박은 많이 기항한다. 지금 본도에 재류하는 일본인은 잡화 판매 및 생선 중매를 하는 자가 1호 3명뿐이지만 그러나 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日本] 어선의 출어 근거지로 삼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 중에서도 여름철의 고등어잡이, 가을의 오징어잡이로 가장 번성한다. 고등어는 구마모토(熊本), 가고시마(鹿兒島) 두 현의 고등어 조업은 매해 140~150척에 달한다. 동 어업이 끝나면 오징어잡이로 옮기는 것이 보통이라 근년 와카야마(和歌山) 현에서부터 역시 여기에 출어하는 자가 많다.<sup>18)</sup>

(가), (나), (다)는 구한말 일제침략이 본격화되던 시기의 기록으로서, 위의 기사들은 남해안의 풍부한 어장으로 인식한 추자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이다. 위의 기사를 살펴보면 향후 어장침탈을 위한 식민화 성격의 보고서임을 알 수 있다. (가)를 보면 추자도의 위치와 기항지의 역할 등 자연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많은 어산물의 생산지임을 알 수 있다. 즉, 추자도를 자국민에게 경제적 생산이 좋은 어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기사도 (가)와 마찬가지로 추자도 어장에 대한 소개이며 추자지역에 이미 일본인들이 거주하며 각종 행정기관과 학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는 추자도가 좋은 정박장을 가지고 있는 기항지이며, 일본인이 거주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추자도가 장래의 유망한 어장으로서 일본에서 출어하는 자가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17) 제주도청(濟州島廳), 「제주도-한라산 제주도의 자연과 풍물; 제주도세일반, 『한국지리풍속지총서』 100: 「楸子面 本面は濟州港を北に距る廿八哩の所にあつて、上島、下島、横干島等の群島より成つて面積僅〇、五方里餘人口三千四百濟州本島の一大部落にも及ばぬ程である。楸子港は海水深く灣入し良好の錨地となつて居て、又漁業根據地として著名の地である、大西里には郵便所警官駐在所、小學校等があつて、春秋兩季中して可なりの殷盛を見るのである」。 조선인쇄주식회사 간행, 경인문화사 영인, 1939, 35쪽.

18) 제주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 「매일신보-南韓巡航記, 1909년 1월 22일, 『자료집-일본신문이 보도한 제주도』: 「楸子島の漁業 楸子嶋は人口約百七八十を有す、一小嶋にして全嶋殆巖石より成り全く陸産を産せず嶋民皆海産に依りて衣食せり■て沿海水産物豊富にして附近漁場に富な殊に本嶋は良好なる錨地を有し適當の港灣なを濟州嶋附近唯一の避難港にして濟州嶋航行の船舶は多く寄港し目下本嶋に在留する日本人は雜貨販賣並に魚仲買を■むもの一戸三人のみなり■雖も春季より秋季に亘りて本邦漁船の■漁根據とするもの頗る多く就中夏季の鯖漁、秋季の烏賊魚を以て最も盛なりとす鯖漁は熊本鹿兒嶋兩縣の鯖釣毎年百四五十隻に及び同漁業終■と共に烏賊釣に移るを常とし近年和歌山縣より亦之に出漁するもの多し」, 제주특별자치도 2006, 234-235쪽.

(가), (나), (다) 모두 추자도가 풍부한 어족 자원과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어민들이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장임을 부각하고 있다. 당시 일본의 어장은 어족이 고갈되고 바다의 황폐화로 인해 일본어민들이 조선 어장으로 진출하던 시기였다. 조선정부의 단속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민의 불법 어로 활동은 늘어났으며, 일본정부는 조선정부와 조약을 통하여 조선에서 자국민 어로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일본 어민들이 주요 어장으로 삼은 곳은 조선의 동해안과 남해안의 어장으로서, 추자도 또한 남해안에 위치해 어족군(群)이 풍부한 곳으로서 주목받았다. 일본어민 중에는 잠수기(潛水器) 어업자들이 많았는데, 제주의 행원·성산·서귀포·모슬포 등과 함께 추자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어로활동을 하였다. 일본인들은 생산물들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팔고 또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도 하고 있었다.<sup>19)</sup>

이처럼 추자도가 각광받는 어장으로 주목받자 일본어민들도 여기(漁期)에만 잠시 정주(定住)하던 것에서 벗어나 추자에 본격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일본인의 이주는 가장(家長), 일본인 남성 단신으로 건너와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주류였다. 하지만 이후 점차 가족단위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일본어민들이 조선으로 출어하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인 자녀의 교육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조선과 달리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전 국민에 대한 기초교육이 정착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조선이주가 가져온 일본인 대상 교육기관의 부재는 신사(神社)와 더불어 조선 정착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문제였다.<sup>20)</sup>

처음 추자도에 이주한 일본인의 기록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05년도에 이미 집단 이주어촌을 형성하고 있었다.<sup>21)</sup> 이후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됨에 따라 일본인 자제교육을 위한 추자도학교조합이 1919년 8월 6일에 설립되고, 1920년 9월 5일에는 추자도공립심상소학교가 설립된다. 초기 일본인 이주민들은 어민들이 주류였지만 점차 순사주재소를 설치하는 등 관리 및 상인, 교직원 등이 들어와 추

19) 첸쇼 에이스케(善生永助), 『제주도생활상태조사』, 제주시우당도서관, 경신인쇄사, 2002, 53쪽.

20) 여박동,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 형성』, 한국일본학회, 보고서, 2002, 265쪽.

21) 김수희, 「朝鮮植民地漁業と日本人漁業移民」, 東京經濟大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6, 93쪽, 강만익, 「일제시기 제주도 마을共同牧場組合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15쪽, 재인용; 첸쇼 에이스케(善生永助) 저, 최석영 해제, 「생활상태조사 - 수원, 제주」, 『한국근대 민속인류학자료대계』, 민속원 영인, 2008, 116-117쪽.

자사회의 행정과 경제를 잠식하였다.<sup>22)</sup>

<표 1> 추자지역 조선인 및 일본인 인구 추이

인구 시기	조선인		일본인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21년	-	-	17호	46명	17호	46명
1925년	-	3,756명	-	-	-	3,756명
1926년	-	-	18호	66명	18호	66명
1927년	-	-	16호	106명	16호	106명
1929년	759호	3,486명	-	-	-	3,486명
1931년	603호	3,347명	35호	156명	638호	3,503명
1932년	-	3,576명	-	117명	-	3,693명
1933년	603호	3,347명	35호	156명	638호	3,503명
1934년	705호	3,596명	69호	159명	772호	3,755명
1935년	706호	3,689명	60호	146명	766호	3,835명
1936년	714호	3,983명	34호	153명	748호	4,136명
1937년	792호	4,095명	34호	141명	826호	4,236명
1938년	681호	3,748명	18호	78명	699호	3,826명
1939년	724호	4,058명	26호	102명	750호	4,160명
1941년	762호	4,170명	33호	131명	795호	4,301명

자료: 『조선총독부 관보중 제주록』<sup>23)</sup>, 『식민지교육정책사료집성』<sup>24)</sup>, 『제주도세요람』(1937·1939)<sup>25)</sup>에서 발췌하여 작성함. 같은 연도에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관보를 중심으로 작성함.

<표 1>을 보면 1921년에 일본인이 호수(戶數) 17호, 인구는 46명이 추자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인 거주자들은 꾸준히 수가 증가하여 호수가 두 배에 이르는 1931년에는 1934년과 인구수가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이주어민의 숫자는 증가일로에 있었다. 제주 본도(本島) 각지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거주지와 비교해 보아도 추자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는 적은 편은 아니었으며, 일제말기까지는 거의 100여 명 이상을 유지 하였다.

## 2. 근대교육의 성립 및 추자지역 사립교육기관의 존재 양상

22) 金東柱, 「濟州人の 3·1運動 과 그 영향」, 『耽羅文化』 16호, 1996, 188쪽.

23) 제주도, 『조선총독부 관보중 제주록』, 1995, 484-489쪽.

24) 조선총독부, 「식민지교육정책사료집성」 39 上, 『제6집 지방교육지』, 대학서원 영인, 1990, 「대정15년 전라남도교육 및 종교일반」 6:10-14:24:25쪽, 「소화 2년 전라남도 교육 및 종교일반」 9:14:20:37:38쪽, 「소화 6년 전라남도 교육 및 종교일반」 14:15:19:27:50:51쪽.

25)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7, 72-79쪽; 1939, 42-49쪽.

## 1) 식민지 국민교육정책의 기본구조와 도입

1876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는 많은 수의 일본인이 정착한다. 상당한 수의 관리와 상인을 비롯하여 일본어민들도 전국각지의 풍부한 어장을 중심으로 조선에서 어로(漁撈)활동을 하였으며 점차 이들은 정주형(定住形) 어민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 일본인 어민들을 비롯하여 일본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소학교(小學校)와 학교조합(學校組合)이 설립되었고, 일본인들이 중심이 된 조선인 대상의 일어학당(日語學堂)도 개설되었다.

조선의 신식교육 시발점은 1894년 갑오경장이 발생하던 12월에 흥범 14조의 제정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sup>26)</sup> 1895년 7월 2일에 ‘소학교령’을 공포하여 초등교육제도의 기본 골자를 제정하였지만,<sup>27)</sup> 1906년에 소학교령은 폐지되고 칙령(勅令) 제44호로 보통학교령을 공포하여 학교설립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다.<sup>28)</sup>

1910년의 일제의 강제합병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기존 교육제도는 폐지되고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무단통치와 더불어 통치의 주요 수단으로 식민지 교육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한일합방 이후 실용주의 노선을 공포하였다. 데라우치는 조선인 교육은 황국신민교육을 중심으로 삼게 하고, 국어[일본어] 및 일상에 필요한 보통지식의 습득과 일본 제국신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당시는 무단정치시기로 문화보다는 시세가 우선이라는 실용주의를 표방하였다.<sup>29)</sup> 데라우치의 방침은 조선교육령 제2조와 제3조에 명시되어 일제 36년 동안 줄곧 그 기초를 유지하게 되며,<sup>30)</sup>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일제말기로 갈수록 내선일체 등의 구호와 함께 ‘충량한 황국신민’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강화되었다.

일제는 1911년에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식민지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제

26) 제주도교육사편찬위원회,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위원회, 1979, 29쪽.

27)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1999, 186쪽.

28) 강동식·강영훈·황경수, 『일제강점기 제주지방 행정사』, 제주발전연구원, 도서출판 가이드, 2009, 113-114쪽.

29) 이만규, 『조선교육사Ⅱ』, 거름신서 35, 거름, 1988, 119쪽; 김형목, 「교육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경인문화사, 2009, 44쪽.

30) 제주도교육청, 위의 책, 215쪽.

는 보통학교 4년(1년 단축가능),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 사범과 1년의 별도과정, 전문학교 3년 과정을 두어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을 분리하였고, 학제 간에도 차별을 두었다.<sup>31)</sup>

이어 1922년에 공포된 제2차 교육령은 보통학교의 교육연한을 종래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등과 설치를 허가했다. 또 고등보통학교를 5년제로 조정하였으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5년(혹은 4년)제로 일본의 고등 여학교에 학제와 맞추었다.<sup>32)</sup> 하지만 <국어를 상용하는 자>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로 나누어 여전히 ‘분리교육’이라는 교육차별이 진행되었다.

1938년의 제3차 조선교육령은 기존의 교육방침과는 달리 항상 일본어를 상용하게 하였으며, 일상의 일본화와 창씨개명을 강제하였다. 당시는 일제가 만주 점령 후, 중국 본토로까지 진출하여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로 전쟁수행에 적합하게 교육령을 개정하였다. 즉, 조선인의 민족정신을 억압하고 내선융화(內鮮融和),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기치로 교육 내용도 전시체제에 맞추었다. 제3차 교육령 시기에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공학(共學)체제가 천명되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인과 조선인 학교의 명칭도 심상소학교로 여전히 민족 간 분리교육을 시행하는 등 형식적인 조치를 취했다.<sup>33)</sup>

1943년에는 제4차 교육령은 태평양 전쟁 말기로서 교육에 관한 전시 비상조치령으로 교육체제가 전쟁수행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교과목에서도 보여지듯 무도(武道) 과목 등이 신설되고 종래의 수업시간을 단축 및 ‘학도근로령’을 통해 학생을 근로에 동원하였다.<sup>34)</sup> 1941년 3월 31일 기존의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재편하기 위해 ‘국민학교령’이 공포되었다. 이에 조선에서도 ‘국민학교규정’이 공포되어 ‘황국신민의 학교’인 국민학교<sup>35)</sup>로 개칭된다. 더 이상 학교는 학업 습득 공간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한 인력양성소로의 기능으로 변질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식민지교육정책 최우선 과제는 적극적으로 일본식 교육을 주입하는 것이었다. 즉, 조선을 내지화(內地化)하여 ‘충량한 황국신민’인

31) 제주도교육청, 위의 책, 215-216쪽.

32) 제주도교육청, 위의 책, 216쪽.

33) 제주도교육청, 위의 책, 216-217쪽.

34) 제주도교육청, 위의 책, 215-216쪽; 김형목, 위의 책, 69쪽.

35) 국민학교는 “황국(皇國)의 도(道)에 즉하여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적 연성(鍊成)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승희,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의 초등교육』, 『지역과 역사』 19호, 2006).

일본인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일제강점기의 조선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식민지 조선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기능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한편, 일제 치하 제주도(濟州島)의 교육기관은 일본인 학교인 심상소학교와 조선인 보통학교, 간이학교, 개량서당 등이 있었다. 한일합방 이전까지 본도(本島)의 교육기관은 1907년 개교한 제주공립보통학교와 정의군에 설립된 사립의명학교, 대정군 사립한일학교가 최초이며,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제주목공립소학교(濟州牧公立小學校)가 제주공립보통학교의 전신으로서 운영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차관(借款)받은 500만원 중에서 50원을 교육확장비(教育擴張費)로 사용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윤원구(尹元求) 군수(郡守)가 교육차관의 일부를 학부(學部)로부터 받아 근대학교인 제주공립보통학교와 중등교육기관 사립의신학교(私立義信學校)를 신설하였다.<sup>36)</sup>

일제는 1919년부터 8개년 계획으로 3면 1개교에 이어서 1면 1개교의 비율로 보통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1920년대 들어서 서귀공립보통학교, 1921년 조천공립보통학교, 1923년 구우공립보통학교, 애월의 신우공립보통학교, 구좌공립보통학교, 성산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24년 서중공립보통학교, 1925년에는 추자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일본의 내정간섭의 심화와 호남(湖南)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조선인들과의 충돌도 잦았는데, 조선인들은 일본어민들과 어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도내(島內)에도 일어학당이 세워졌다.

## 2) 추자도의 서당 및 사립교육기관의 실태

추자지역은 절해고도(絶海孤島)라 유배인(流配人)이 많았으며, 유배인들의 입도(入島)로 추자도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추자도의 유배인들을 보면 1865년(고종2) 박준갑(朴準甲) 및 1870년(고종7) 유신(儒臣) 조만식(趙晩植), 1876년(고종13)에 이조판서(吏曹判書) 조병창(趙秉昌), 1899년(광무3)에 김세제(金世濟), 1904년(광무8) 무관(武官) 길영수(吉永洙) 등이 유배되었다.<sup>37)</sup>

36) 제주도교육사편찬위원회,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위원회, 1979, 27쪽.

37)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1999, 96쪽.

이렇듯 추자지역의 교육은 많은 유배인으로 인해 전통적인 교육풍토가 조성되었으며, 유배객으로 인해 교육기관이 세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구한말 신학문 교육기관이 도입되는 시기에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추자지역에서도 전국 및 제주와 마찬가지로 몇 개의 서당이 동네마다 존재했는데, 추자도의 마을지와 추자공립보통학교 학적부를 통해 서당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서당의 존재가 근대적인 개량서당으로 변천했는지는 알 수 없다.

<표 2> 추자지역 서당 현황

마을	서당명	존속기간	훈장	학생수	규모
대서리	빗겐이 서당	1930~1932	김여천	약 30명	초가
대서리	무명 서당	1936~1942	김만수	약 20명	초가 3간집(방1개)
신양리	한아지 서당	?~1936	김보백	15~20명	초가 3간집(방1개)
목리	목리 서당	?~1932	김보백	약 10명	초가 3간집(방1개)
예초리	무명 서당	?~1938	오수태	30~40명	초가(방 1개)

자료: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서당교육』, 1994, 252-255에서 인용.

<표 2>에서처럼 추자지역 각 동네에서는 서당이 설립되어 운영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상추자도 지역인 대서리에 있는 서당은 추자공립보통학교가 이미 세워진 이후인 1930년대에 설립되어 운영됐으며, 하추자도 각 리에 있는 서당들은 설립시기가 불투명하나 대체로 1930년대까지 존속하였다. 근대 공립보통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수의 학생들이 서당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성격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경제적 혹은 일제의 공교육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1916년도에는 전통적인 서당과는 별도로 하추자도 신양리와 목리의 경계에서 개량서당인 진영서숙(進英書塾)이 개설되었다. 숙장(塾長)으로는 김서순, 교사는 이기호·조찬환·일본인 우치무라 도쿠헤이(內村德平)가 학생들을 가르쳤다. 상추자 지역인 대서리와 영흥리에도 개량서당이 있었지만 추자공립보통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자연 폐쇄되었다.<sup>38)</sup>

당시 추자지역에서는 김서순이 자주 등장하는데, 김서순은 유지로 사립학교 설

38)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위의 책, 94쪽.

립하는 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리고 당시 유배객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다음은 김서순과 유배인과의 관계기록이다.

(라) 報懲悖類 莞島郡守李鼎相氏가 法部에 報호되 庚子年分에 島配罪人 尹濟普, 金必濟 兩人이 楸子島民 金瑞淳과 交腸接肚호야 外托爲民호고 內實謀遁호야 該島를 濟州牧에 移付호면 島民에게 利益이 多호다 誘引호야 數千金民財를 收合호 後第幾夜에 孤棹로 移泊于陸호야 金必濟는 逃躲上京타가 仍爲被捉호얏더니 今又尹濟普가 該島를 內藏院에 移屬호다호고 四千兩을 民間에 又爲收刷호야 島民 金永旭을 派送上京호얏스 則此等悖類는 不可仍寘라호얏더라<sup>39)</sup>

위의 기사 (라)를 보면 김서순이 당시 추자도의 지역유지로서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유배된 죄인 윤제보와 김필제가 추자도를 제주목과 내장원에 부속시킨다는 명목으로 추자주민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있었다. 당시 추자도민들이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민재(民財)를 모으는 과정에서 김서순이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김서순은 진영서숙의 숙장 지위뿐만 아니라 당시 추자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추자도민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協力)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교육이 추자지역에 도입되던 시기에 유배인 유신(儒臣)인 송주성(宋柱星), 김태동(金泰童), 김제성(金濟星) 등이 영흥리 박치효(朴致孝)의 집에 기거하며 대서리에 광흥학교(廣興學校)를 설립하고 교장은 김상진(金相振)이 맡았다. 하추자 지역 묵리에는 개성학교(開盛學校)를 설립하고 교장은 김덕민(金德民)이 맡아 학교를 운영했다.<sup>40)</sup> 또, 진영서숙, 광흥학교, 개성학교와는 별도로 추자지역에는 다른 학교 설립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마) 南來人의 傳說을 據호 卽 全南莞島楸子島居 金瑞淳 李聖實 兩氏가 時代의 文明風潮를 觀感호고 靑年子弟를 教育호 目的으로 私立學校를 設호고 教師를 延聘호 次로 專人上京호얏스니 濱海一隅에 此等志士가 有호야 愛國思想으로 文明事業

39) 「황성신문」, 1902년 10월 24일자. 「報懲悖類」.

40)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위의 책, 100쪽.

을 倡導함은 果是一大奇事라 吾儕는 爲之讚誦不已호노라<sup>41)</sup>

(바) 楸島明星 莞島郡楸子島에 居호는 紳士諸氏가 教育이 急務됨을 覺悟호고 啓  
星學校를 設立호았는디 金鳳植 李錫兩氏가 自己의 所有田土二十餘斗落을 各其寄付  
호았고 金承培氏는 學部에 承認호을 次로 裏足上 來호았다더라<sup>42)</sup>

(마)에서는 추자도 사람인 김서순과 이정보가 신식 교육이 시급함을 들어 학교  
를 설립하는 모습이다. 위 기사에서 두 사람은 본도(本島)의 청년들을 가르칠 교  
사를 초빙하기 위해 상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 또한 계성학교를 설립기사로 추자도에 거주하는 신사(紳士) 여러 명이 가  
장 시급한 일로서 교육을 언급하고 있다. 신사 계층 중 김봉식·이석우·김승배가  
발기하여 계성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김봉식과 이석우는 자신  
의 소유 전토(田土) 20여 두락(斗落)을 각기 회사하여 학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목리의 개성학교는 계성학교와의 연관성이 추정된다. 개성·광흥학교는 마을지  
에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며, 따로 학교 설립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계성학교가  
개성학교로 잘못 와전되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개성·광흥학교의 설립은 유  
배인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교육 여건이 미처 조성되지 않은 추자지  
역에 추자도민 독단적으로 신식학교를 세우기에는 무리였다. 앞의 기사에서도 언  
급하였지만 추자지역의 교육의지와 함께 경제·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신사 계층이 유배인과 함께 학교설립에 관계하고 있다.

계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활동한 인물 중 김승배<sup>43)</sup>가 주목된다. 김승배는 당

41) 위의 신문, 1909년 06월 17일자, '海天破荒'.

42) 위의 신문, 1910년 01월 11일자, '楸島明星'.

43) 제주도, 『조선총독부 관보중 제주록』,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경신인쇄사, 1995, 196쪽, 1930년 12월  
5일. 어업조합(漁業組合) 설립등기, 명칭: 추자도어업조합(楸子島漁業組合), 주사무소: 추자면 대서리 4번  
지, 목적: 어업권을 취득하고 또는 어업권 대부분을 받아 조합원의 어업에 관한 공동시설을 시행함, 지구:  
추자면 일원(一圓), 설립인가일: 1919년 3월 21일, 조합장 및 이사(理事), 감사(監事) 주소(住所), 성명:  
추자면 대서리 36번지 조합장 이동선(李東善), 추자면 대서리 36번지 이사 전중두(田中斗), 추자면 대서  
리 40번지 감사 니시자키 쇼타로(西崎庄太郎), 추자면 목리 426번지 감사 김승배(金承培), 1932년 1월  
4일. 추자도어업조합(楸子島漁業組合) 등기변경. 감사(感謝) 니시자키 쇼타로(西崎庄太郎), 김승배(金承培)  
는 임기 만료하여 1931년 9월 16일 총대회에서 니시자키 쇼타로(西崎庄太郎)은 재선(再選)되고 동일 다  
음 자가 감사(監事)로 선임되어 1931년 11월 20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취임함, 추자면 대서리  
31번지 김문숙(金文淑), 추자면 예초리 285번지 오두인(吳斗仁), 1931년 12월 3일 등기 광주시방법원  
제주지청;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1923, 1924, 1926, 金承培 지  
방관서>전라남도>부군도(府郡島)>제주도 楸子面長

시 추자도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후에 추자면장에 오르는 인물이다. 김승배는 추자도어업조합의 감사(監事) 등을 역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업조합은 추자도의 대표적인 단체로서 일본인과 함께 조합간부들은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김승배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계층으로 보이며, 어업조합의 간부로서 일제당국과 협력 혹은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앞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당시의 근대 교육이 추자지역에서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그 교육열을 짐작할 수 있다. 남해안의 작은 섬인 추자도에서조차 신식교육에 대한 열망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시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방에 비해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서 보듯 애국사상으로 문명 사업을 선도해야 한다는 대목은 당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여 교육이 굳건해야 한다는 믿음이 조선 대부분에 통용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추자지역에는 조선인 교육기관 말고도 일본인 교육기관으로 판단되는 흥양학교(興陽學校)가 있었다.

(사) 사구미(寺九味)에는 흥양학교(興陽學校)가 있는데 교사(教師) 2명 모두는 방인(邦人, 일본인)으로서 1인은 일어(日語)를 교수(教授)한다. 생도(生徒) 20인이 있다. 유지(維持)는 본도(本島)의 물산(物産)을 매매(賣買)하여, 제문옥(際問屋, 도매상) 구전(口錢) 명의(名義)로 징수(徵收)하여 자금(資金)을 충당(充)한다. 방인(日本人) 의사(醫師) 1명이 있다.<sup>44)</sup>

사구미는 상추자도 영흥리를 일컬으며 절기미 혹은 사(寺)기미라고도 불렀다.<sup>45)</sup> 이 학교는 일본인 주도의 사립교육기관으로 보이나, 일본인 전용(全用)의 학교인지 조선인을 포함한 공학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교사 2명이 전부 일본인으로 구성된 점과 다른 1명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일본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으로 생각된다. 기록된 시기가 명치 43년 즉, 1910년경이므로 그 이전부터 정착한 일본인과 당시 거주하던 일본인 자녀의 교육기

44)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한국수산지 6」, 『한국지리풍속지총서』 370: 「寺九味には興陽學校あり教師二名共に邦人にして一人は日語を教授す、生徒二十人あり、之れか維持は本島の物産を賣買する際問屋口錢名義にて徵收し以て資金に充つ、邦人醫師一名あり」, 조선총독부인쇄국 간행, 경인문화사 영인, 2005, 376쪽.

45)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위의 책, 374쪽.

관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명은 자국어인 일본어를 교수하고 또 한 명은 다른 과목을 가르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홍양학교의 학생 수가 추자공립심상소학교가 설립되고 난 후의 학생 수와도 비슷한 점, 또 제문옥(際間屋)이라는 도매상을 통해 경비를 마련한 점으로 보아 일본인 학교로 판단된다. 추자지역의 학교조합은 1919년에 설립되었는데 아마도 합병 이전에 추자지역에 거주하던 일본인 사립교육기관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홍양학교를 전신으로 삼아 추자공립심상소학교로 발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홍양학교를 일본인 교육기관으로 보는 이유에는 일본인 의사와 관계 설정이다. 이 일본인 의사의 소상한 점은 알 수 없으나, 추자도의 한지의사(限地醫師)인 시모무라 다카유키(下村孝之)로 생각된다. 시모무라는 의사이면서 추자도학교조합의 조합원이었다. 이 시모무라가 홍양학교의 방인 의사일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시모무라의 입도(入島) 시기는 알 수가 없으나 1928년에 처음으로 추자지역에서 시모무라의 의사면허 기록이 발견된다.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시모무라의 의사면허 연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방 이전까지 한지의사 면허(46)를 가지고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지의사는 제한된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당시 의료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도서벽지 등에 파견하여 의료를 담당 하였으며, 공의(公醫)와는 그 성격이 달라서 일본인의 의료사업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47)</sup> 즉,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는 기본적 시설인 학교와 더불어 의료진을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시모무라의 한지의사 면허기록이 1945년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아 해방 전까지 추자도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지의사를 배치한 점으로 보아 홍양학교는 조선인 학교가 아닌 일본 자국민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46) 제주도, 『조선총독부 관보중 제주록』,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경신인쇄사, 1995, 162쪽, 1928년 5월 10일. 한지의사(限地醫師) 계속면허, 면허일: 1928. 2. 3, 면허번호: 160, 면허지역: 추자면 일원(一圓), 면허기간: 1928.2.1~1931.1.31, 성명: 시모무라 다카유키(下村孝之).

47) 강동식·강영훈·황경수, 『일제강점기 제주지방 행정사』, 제주발전연구원, 도서출판 가이드, 2009, 358-359쪽.

### 3. 식민지 추자지역 민족 분리교육 실태 및 학교조합과 공립심상소학교

추자지역은 1910년 병합 이후 사립교육기관이 아닌 공립학교들이 설립된다. 첫 번째는 1920년에 설립된 추자공립심상소학교이며, 두 번째는 1925년에 개교한 조선인 학교인 추자공립보통학교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의 핵심은 차별과 동화정책이 중심인 민족분리교육이다. 교육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체상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식민지 조선의 교육은 1922년 개정조선교육령에 의해 <국어를 상용하는 자>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여 차별교육이 시행되었다.

<표 3> 제주지역 공립보통학교 현황(1926년 당시)

공립보통 학교명	소재지	창립 연월	수업 연한	직원				학 급	아동수		경비		
				내지인		조선인			남	여	정상	임시	계
				남	여	남	여						
제주공립 보통학교	제주면	1907년	6년	3명	2명	7명	1명	13	671명	126명	17,861엔	3,840엔	21,701엔
정의공립 보통학교	정의면	1909년	4년	1명	-	3명	-	4	205명	2명	5,685엔	-	5,685엔
대정공립 보통학교	대정면	1911년	4년	1명	-	5명	-	3	199명	9명	5,188엔	-	5,188엔
서귀공립 보통학교	우면	1920년	4년	1명	-	3명	-	4	178명	-	5,188엔	-	5,188엔
조천공립 보통학교	신좌면	1921년	4년	1명	-	4명	-	6	261명	26명	8,113엔	-	8,113엔
구우공립 보통학교	구우면	1923년	4년	1명	-	4명	-	4	268명	-	5,188엔	-	5,188엔
신우공립 보통학교	신우면	1923년	4년	1명	-	3명	-	4	232명	28명	5,188엔	-	5,188엔
성산공립 보통학교	정의면	1923년	4년	1명	-	3명	-	4	262명	-	5,188엔	-	5,188엔
구좌공립 보통학교	구좌면	1923년	4년	1명	-	3명	-	4	256명	9명	5,685엔	-	5,685엔
서중공립 보통학교	서중면	1924년	4년	1명	-	3명	-	4	157명	-	3,891엔	2,340엔	6,221엔
추자공립 보통학교	추자면	1925년	4년	1명	-	4명	-	4	145명	14명	5,485엔	-	5,485엔
합계				13명	2명	42명	1명	54	2,834명	214명	72,660엔	6,180엔	78,830엔

자료: 『식민지교육정책사료집성』<sup>48)</sup>, 『제주도세요람』(1937·1939)<sup>49)</sup>에서 발췌하여 작성.

<표 3>을 보면 제주공립보통학교의 학생의 수가 가장 많은데 거의 800여명에 이르며 나머지 학교들도 학생수가 200명 이상의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보통학교와 심상소학교의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현격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추자지역과 제주지역은 구한 말 이래 활발한 교육운동이 있었으며 사립학교와 각종 교육시설들이 설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제는 식민지 조선인 교육의 시급함보다는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 자녀교육에 집중했는데, 이런 이유로 제주도내의 학교 설립상황도 일본인 학교 설립이 우선되고 조선인 학교는 1920년대 이르러서야 그 수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제주지역 공립심상소학교 현황(1926년 당시)

공립소학교명	소재지	창립연월	수업 연한	직원		학 급	아동수		경비		
				남	여		남	여	경상	임시	계
제주공립심상 고등소학교	제주면	명치 39년 11월(1906년)	심상 6년 고등 2년	2명	1명	3명	37명	45명	4,665엔	-	4,665엔
서귀포공립 심상소학교	우면	대정 6년 5월(1917년)	심상 6년	1명	1명	1명	10명	17명	2,967엔	-	2,967엔
성산포공립 심상소학교	정의면	대정 8년 9월(1919년)	심상 6년	1명	1명	1명	6명	6명	440엔	1,300엔	1,740엔
추자도공립 심상소학교	추자면	대정 9년 5월(1920년)	심상 6년	1명	1명	1명	8명	6명	1,995엔	-	1,995엔
합계				5명	4명	6명	61명	74명	10,067엔	1,300엔	11,367엔

자료: 『식민지교육정책사료집성』<sup>50)</sup>·『제주도세요람』(1937·1939)<sup>51)</sup>에서 발췌하여 작성.

<표 4>의 일본인 심상소학교가 세워진 지역은 주로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제주면(濟州面)과 서귀포 및 성산 그리고 추자도에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들 지역은 제주의 행정중심지와 어장이 형성되어 있던 곳으로서 일본인 거주자가 많은 곳이다. 우선 제주면의 경우를 보면, 1906년에 일본인 학교인 제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가 설립되고, 1년 후인 1907년에야 비로소 조선인 학교인 제주공립보통

48) 조선총독부, 『식민지교육정책사료집성』 39 상, 『제6집 지방교육지』, 대학서원 영인, 1990, ‘대정15년 전라남도교육 및 종교일반’ 6:10:14:24:25쪽, ‘소화 2년 전라남도 교육 및 종교일반’ 9:14:20:37:38쪽, ‘소화 6년 전라남도 교육 및 종교일반’ 14:15:19:27:50:51쪽.

49)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7, 72-79쪽; 1939, 42-49쪽.

50) 조선총독부, 위의 책, 1990, ‘대정15년 전라남도교육 및 종교일반’ 6:10:14:24:25쪽, ‘소화 2년 전라남도 교육 및 종교일반’ 9:14:20:37:38쪽, ‘소화 6년 전라남도 교육 및 종교일반’ 14:15:19:27:50:51쪽.

51) 濟州島廳, 위의 책, 1937, 72-79쪽; 1939, 42-49쪽.

학교가 설립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서귀포지역 또한 1917년에 일본인 심상소학교가 설립되며 서귀공립보통학교는 1920년에 이르러서야 설립된다. 조선인 보통학교의 설치 상황과 비교할 때 확연히 다른 점은 일본인 심상소학교의 경우 강점 이전 이미 학교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1910년대를 기점으로 기초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취학률에서도 조선에서의 심상소학교의 취학률은 1915년 89%까지 하강하다가 이후 줄곧 상승하여 1922년부터는 99%를 상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곧 일본인의 교육이 의무교육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sup>52)</sup> 즉, 일본인 자녀를 위해 일찍이 학교가 세워지고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학교와 심상소학교는 수업연한에 있어서도 그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보통학교는 제주공립보통학교만 6년제를 시행했으며,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4년제이다. 물론 일제말기로 갈수록 보통학교들이 6년제로 학제가 변경되기도 하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 제4차 조선교육령 시행 이후 전황(戰況)에 따른 시책으로 국민학교(國民學校)가 설립되고 정착되면서 6년 학제로 고정되었다. 그에 반해 심상소학교의 학제는 모두 기본 6년이며, 제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의 경우는 고등 2년의 학제를 더 두었다. 이는 일본인 학생이 초등교육과정을 마치면 상급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는데 반해, 조선인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종결시키면서 상급교육 진학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기 어렵게 함으로써 조선인의 교육은 실용적 목적에만 부합하는 저급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내지인)으로 동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차별적인 분리교육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식민지 국민교육의 핵심이다.

1926년 당시 심상소학교의 학생 인원을 살펴보면 제주공립심상소학교에는 82명의 학생이 취학을 하고 있으며 그 외 학교의 학생은 30명 미만의 인원이 재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추자도 또한 1개 학급에 불과 14명의 재학생을 볼 수 있다.

52) 정근식, 「일제하 전남농촌의 교육실태-망운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무안군 망운지역 농촌사회구조변동 연구』,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8, 122쪽.

<표 5> 추자도 학교조합 현황

설립 연월	연도	호수	인구	조합비 총액	부과금 총액	부과금 1호당 평균액	1학급당 경상비	관리자
1919년	1926년	18	66명	2,265엔	250엔	13.89엔	1,995엔	西崎好五郎
	1927년	16	106명	2,088엔	282엔	17.63엔	1,794엔	西崎好五郎
	1931년	20	109명	1,315엔	228엔	16.90엔	1,924엔	西崎庄太郎

자료: 『식민지교육정책사료집성』<sup>53)</sup>에서 발췌하여 작성.

<표 5>는 1926·1927·1931년도의 추자도학교조합 표이다. 학교조합(學校組合)은 일제시기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조선 각지에 설립된 공공법인 지방단체이다.<sup>54)</sup> 추자지역도 학교가 설립되기 이전 거주 일본인들에 의해 1919년에 학교조합이 설치되고 다음해인 1920년 5월 1일에 추자공립심상소 학교가 설립되었다.

개항 이후 일본인들은 조선으로 이주하면서 학교조합을 설립하고 공립학교를 세우는데, 일본인 자녀의 교육이 중요한 이유로는 일본인의 조선 정착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가족단위의 조선이주 생활은 일본에서보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편의시설 등은 모자라고 특히 중요한 교육 문제가 가장 시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일제당국은 일본인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들을 조선에서 교육시켜 장래에 일본화된 조선의 지도자로 육성하고자 계획하였다.<sup>55)</sup>

추자도 학교조합자료는 1926·1927·1931년도 기록이 남아있다.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거주하던 일본인 호수가 대략 18호수(戶數)에서 20호 사이였으며 인구는 1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조합비 총액은 대략 2,000엔대였다가 1931년에 들어서면 1,315엔으로 떨어진다.

53) 조선총독부, 「식민지교육정책사료집성」 39 상, 『제6집 지방교육지』, 대학서원 영인, 1990, ‘대정15년 전라남도교육 및 종교일반’ 6:10:14:24:25쪽, ‘소화 2년 전라남도 교육 및 종교일반’ 9:14:20:37:38쪽, ‘소화 6년 전라남도 교육 및 종교일반’ 14:15:19:27:50:51쪽.

54) 조미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교조합 설립 규모」, 『史林』 제22호, 2004, 43쪽.

55) 조미은, 위의 논문, 45쪽.

<표 6> 추자공립심상소학교 상황표

시기	수업 연한	직원		학급	아동수		경비			학교장
		남	여		남	여	경상	임시	계	
1926년	심상 6년	1명	1명	1	8명	6명	1,995엔	-	1,995엔	橋爪彌三郎
1927년		1명	-	1	11명	8명	1,794엔	-	1,794엔	上野景章
1931년		1명	1명	1	16명	12명	1,924엔	-	1,924엔	竹內實滿
1937년		1명	-	1	10명	11명	-	-	1,950엔	-
1939년		1명	-	1	12명	9명	-	-	-	-

자료: 『식민지교육정책사료집성』<sup>56)</sup>, 『제주도세요람』(1937·1939)<sup>57)</sup>에서 발췌하여 작성.

추자지역도 제주본도(本島)와 마찬가지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민족 분리교육이 나타난다. 우선 학교의 설립시기를 보면 일본인은 1919년에 학교조합을 설치하고 1920년에 추자공립심상소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이전까지 내내 1학급을 유지하고 학생 수 또한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28명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학교조합이나 심상소학교 상황을 살펴보아도 당시 추자지역의 일본인 인구는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으며 실제로 취학한 학생도 10명에서 20명을 조금 넘는 수를 유지할 만큼 학생 수는 일제강점기 내내 동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당국은 조선에서 거주하는 일본인의 편의를 위해 일찍이 학교를 설립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공립보통학교비용령 제2조를 보면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설립구역 내에 있는 조선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sup>58)</sup> 즉, 학교설립에 대한 부담을 조선인에게 전가시킴으로서 조선인 학교설립을 규제하였다. 이전에 추자지역에는 사립교육기관들이 다수 존재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당시 교육에 대한 조선인의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추자도의 주민들이 서당과 개량서당 등 비제도권 사립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 비해, 일본인들은 공식적인 제도권 공립심상소학교를 설립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취학시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56) 조선총독부, 위의 책, 1990, '대정15년 전라남도교육 및 종교일반' 6:10-14:24-25쪽, '소화 2년 전라남도 교육 및 종교일반' 9:14-20:37-38쪽, '소화 6년 전라남도 교육 및 종교일반' 14:15-19:27:50-51쪽.

57) 濟州島廳, 위의 책, 1937, 72-79쪽; 1939, 42-49쪽.

58) 고려대학교 한국사 연구소 일제시대사 연구실,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의 지방제도 관계법령 비교자료집』, 선인, 2010, 434쪽.

<표 7> 추자공립보통학교 상황표

연도	수업 연한	직원				학 급	아동수		경비			학교장	비고
		일본인		조선인			남	여	경상	임시	계		
		남	여	남	여								
1926년	4년	1명	-	4명	-	4	145명	14명	5,485엔	-	5,485엔	橋爪彌三郎	
1927년	4년	-	-	3명	-	4	93명	8명	5,203엔	250엔	5,453엔	上野景章	
1929년	4년	1명		3명	-	4	115명	8명	2,219엔	650엔	2,869엔	-	일본인 교사 1명 과 조선인 교사 3 명은 남녀를 구별 할 수 없음.
1931년	4년	1명	-	2명	-	3	117명	6명	4,189엔	-	4,189엔	牟田芳街	
1932년	4년	1명		2명	-	3	114명	5명	4,235엔	-	4,235엔	-	
1933년	4년	1명		2명	-	3	108명	8명	4,306엔	-	4,306엔	-	
1934년	4년	1명		2명	-	3	122명	6명	4,377엔	-	4,377엔	-	일본인 및 조선인 교사는 혼도
1937년	4년	-	-	-	-	3	134명	17명	-	-	4,524엔	-	
1938년	4년	1명		2명		3	149명	25명					
1939년	4년	-	-	-	-	3	153명	27명	-	-	-	-	

자료: 『식민지교육정책사료집성』<sup>59)</sup>, 『제주도세요람』(1937·1939)<sup>60)</sup>에서 발췌하여 작성.

<표 7>은 추자공립보통학교의 상황표이다. 일본인 심상소학교와 비교하면 조선인 학생의 수는 적게는 101명에서 많게는 180명으로서 추자공립심상소학교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그 수가 많았다. 게다가 심상소학교는 20명 내외의 학생을 2명의 일본인 교사가 가르치는데 비해 보통학교는 평균 3명의 교사가 100명에서 200명에 다다른 학생들을 전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교사 또한 보통학교는 여교사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심상소학교에서는 보통 1명의 여교사를 배치하여 여학생에 대한 교육을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인 보통학교에서는 여교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만성적인 교사부족의 현상마저 볼 수 있다. 추자공립보통학교의 교장은 모두가 일본인으로 처음 추

59) 조선총독부, 위의 책, 1990, '대정15년 전라남도교육 및 종교일반' 6:10-14:24-25쪽, '소화 2년 전라남도 교육 및 종교일반 9:14-20:37-38쪽, '소화 6년 전라남도 교육 및 종교일반' 14:15-19:27-50:51쪽.

60) 濟州島廳, 위의 책, 1937, 72-79쪽; 1939, 42-49쪽.

자공립보통학교가 개교당시에는 심상소학교의 일본인 교장이 겸임을 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도서지방이란 특성 때문에 심상소학교에 일본인 교장을 부임시키면서 보통학교의 업무를 관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심상소학교와 보통학교가 학교조합과 학교비에 소속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인 학교의 예하에 두게 하여 일제당국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학제에 있어서도 추자공립심상소학교는 심상 6년제인데 비해 추자공립보통학교는 4년 학령제를 유지하였다. 보통학교의 수업연한 또한 제2차 교육령으로 인해 종래의 4년제 학교가 6년제로 연한이 변경이 가능했지만, 제주도내 학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 6년제로 개편하는 것과는 달리 줄곧 4년제를 유지했다. 이후 일제말기 추자공립보통학교는 상추자 지역의 추자공립보통학교 본교가 추자서국민학교로, 하추자 지역에 있는 추자공립보통학교 본교가 1941년 신양국민학교로 분리·개교하면서 비로소 6년제의 학교로 정착되었다.

다음은 경비 문제이다. 1926년의 추자심상소학교와 추자공립보통학교의 총 비용을 단순 비교해 보면 심상소학교에 비해 보통학교의 비용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학교의 학생 수에 따른 경비는 월등히 일본인 소학교가 앞서는 것을 볼 수 있다. 1915년의 식민지 조선에서 초등교육 경비를 살펴보면, 보통학교에 취학하는 학생은 1인당 22엔이며, 심상소학교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39엔이었다. 1937년에는 보통학교 학생이 34엔만 증가한데 비해 심상소학교 학생의 경비는 111엔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sup>61)</sup>

추자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추자공립심상소학교의 학생 1인당 경비는 143엔이며 추자공립보통학교 학생 1인당 경비는 34엔으로 일본인 교육에 대한 경비가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같은 지역의 학교이지만 경비 운용에 있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일본인의 교육은 국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데 반해, 조선인의 교육은 조선인 스스로의 비용으로 충당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 간 교육의 불평등은 초등학교 운영의 경제적 비용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보통학교의 재정주체는 1920년에 설치된 학교비였던 반면에, 일본인 심상소학교는 학교조합을 통해 운영하였다. 하지만 보통학교와 심상소학교의 세입구조는 상

61) 車駟權, 『韓國地方財政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4, 50쪽.

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1인당 교육비나 일제당국의 보조율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식민지 조선의 학교비세입 중 국고(國庫) 및 도(道)의 보조가 점유하는 비율은 1912년 44.6%에서 1937년 37.8%로 격감되었지만, 학교조합의 국고 및 도 보조비중은 오히려 1912년 22.5%에서 1937년 45.5%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sup>62)</sup>

즉, 학교조합은 주로 조선총독부에서 지원한 국고보조가 있었으나, 조선인에 대한 교육재정은 지방행정기관에 예속되어 어려움이 있었다.<sup>63)</sup>

이와 같이 식민지 조선의 교육은 일본인 심상소학교의 설립이 우선하고 그 다음으로 조선인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추자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정을 보여준다. 즉, 조선 내에서의 차별적인 요소가 추자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열악한 교육상황을 조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본인 교육에 있어서 학교조합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1931년 초까지의 결기구로서 위상이 대단하였다.<sup>64)</sup> 조선인의 학교비와는 달리 학교조합은 학교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부분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조선인 학교비가 지방행정기관에 포함되어 집행 대한 권리가 없는 반면 학교조합은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단체였다.<sup>65)</sup>

이러한 현상의 규명을 위하여 추자지역에 남아있는 추자학교조합의 조직과 그 운영에 대해 1926년의 「소화원년도 추자도학교조합 세입출결산 보고의 건」을 살펴 보겠다.

62) 車軒權, 위의 책, 1984, 51쪽, 정근식, 「일제하 전남농촌의 교육실태-망운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무안군 망운지역 농촌사회구조변동 연구』,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8, 123쪽, 재인용.

63) 정근식, 위의 논문, 123쪽.

64) 송지영, 「일제시기 부산부의 학교비와 학교조합의 재정」, 『역사와 경계』 55, 부산경남사학회, 2005, 172-173쪽.

65) 고려대학교 한국사 연구소 일제시대사 연구실,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의 지방제도 관계법령 비교자료집』, 선인, 2010, 470-471쪽.

<표 8> 추자도학교조합 세입항목(1926)

관	과목		결산액	예산액	비교		부기	
	항	증			감			
세입	1.조합비		336.18	250.00	86.18			
		1.호별 할	336.18	250.00	86.18		조합원 증가에 의한 증가	
	2.사용료 및 수수료		61.50	50.00	11.50			
		1.학교 수업료	60.20	49.00	11.20		아동 증가에 의한 증가	
		2.독촉 수수료	1.30	1.00	.30		독촉보(保)교에 의한 증가	
	3.이월금		674.85	550.00	124.85		세계잉금(歲計剩金)에 의한 증가	
	4.보조금		1,300.00	1,340.00		40.00		
		1.국고보조금	1,000.00	1,000.00			한 학급 보조금	
		2.지방비 보조금	200.00	340.00		40.00	보조증액을 시켜야함으로 감(減)	
	5.기부금		50.00	60.00		10.00		
		1.소학교 지정 기부금	50.00	60.00		10.00	기부자 퇴거(退去)에 의해 감(減)	
	6.과년(過年)도 수입			3.00		3.00		
		1.조합비		3.00		3.00	채납자에 의한 감(減)	
	7.잡수입		32.61	12.00	20.61			
		1.예금이자	32.61	10.00	22.61		운용금에 의한 증가	
		2.채납처분비		1.00		1.00	피처분자 없음	
		3.물품매각비		1.00		1.00	매각 불용분 없음	
	세입합계			2,455.14	2,265.00	190.14		

자료: 「소화원년도 추자도학교조합 세입출결산 보고의 건(1926)」 (단위:円)

<표 9> 추자도학교조합 세출항목(1926)

	과목		결산액	예산액	비교		부기
	관	항			증	감	
세출	1.사무소비(事務所費)		159.68	230.00		70.32	
		1.보수(報酬)	20.00	20.00			관리자 보수 20엔(円)
		2.급료(給料)	90.00	120.00		30.00	서기(書記) 일원(一員) 위(爲) 감(減)
		3.여비(旅費)	19.60	40.00		20.40	출작■■■■에 의한 감(減)
		4.용인료(傭人料)	4.80	5.00		.20	용인(傭人)에 의한 감(減)
		5.잡급(雜給)	10.00	10.00			
		6.수용비(需用費)	14.72	30.00		15.28	체납에 의한 감(減), 비품수용비 3엔(円), 청탁품비 10엔(円), 보통학교비 1엔(円) 72전
		7.잡비(雜費)	.56	5.00		4.44	체납에 의한 감(減)
	2.회의비		12.00	10.00	2.00		
		1.비용■채	7.00	6.00	1.00		조합금■■■■.....■
		2.수용비(需用費)	5.00	4.00	1.00		동(叻)
	3.소학교비		1,936.96	1,995.00		58.04	
		1.급료(給料)	1,402.50	1,428.00		24.50	본봉(本俸) 825엔(円), ■봉(■俸) 5,774.50 엔(円, ■)
		2.여비(旅費)	39.40	60.00		20.60	출여로인한 감(減)
		3.잡급(雜給)	318.00	322.00		4.00	보습과 출■ 60엔(円), 차■■■■ 80엔(円), ■■■금 182엔(円), 소사■ 2엔(円)
		4.수용비(需用費)	105.12	15.00		9.88	■■■■.....■
		5.수선비	51.94	50.00	1.94		수선■소로인한 증가(增), 기■■■■비로 지출(支出)
		6.잡비	20.00	20.00			식구(式口)운동회비 14엔(円), 아동장려비(兒童壯麗費) 6엔(円)
	4.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8.25	9.00		.75	훈도(訓導)■■ ■■■■
	5.잡지출(雜支出)		1	1.00		1.00	
		1.체납처분비		1.00		1.00	피처분자 없음
6.예비비			20.00		20.00	제2관 제1항 및 제3항 ■■ 1엔(円)을 지출함, 제3관 제5항에 1엔(円) 94전을 지출함	
세출합계		2,116.89	2,265.00		148.11		

자료: 「소화원년도 추자도학교조합 세입출결산 보고의 건(1926)」 (단위:円)

위의 <표 8>과 <표 9>는 「소화원년도 추자도학교조합 세입출결산 보고의 건」에서 발췌한 추자도학교조합의 세입·세출 부분 예산 내역이다.

학교조합의 조합비 구성을 파악하는 것은 당시 추자사회에 거주했던 일본인 학교의 활동과 그 구성원들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추자도 학교조합의 재정을 크게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각 항목의 예산액을 분석해 보았다.

「소화원년도 추자도학교조합 세입출결산 보고의 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재원은 일본인 조합비와 보조금 중심으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자도학교조합의 재정실태를 살펴본 결과 세입은 조합비,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보조금, 기부금, 과년도 수입, 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추자도학교조합의 예산표와 함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서로서 예산의 내역이 어떠한 이유로 집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아) 세입부

제1관 조합비 제1항 호별할(戶別割) 조정액 230엔 53전에 있는 체납액 2엔 35전 1명이며 어기중(漁期中) 일시거주자가 많은 까닭에 예산액보다 86엔 18전이 증가했다.

제2관 사용료 및 수수료 제1항 학교수업료. 취학 아동의 중퇴(中退)보다 입학(退入學)하는 사람이 4명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 제2항 독촉수수료 없음■■■ 1엔.

제3관 이월금 전년도 세계(歲計) 잉여금이 많음에 의해 124엔 85전 예산액 보다 증가함.

제4관 보조금 제1항 국고보조금 1학급 1000엔으로 증가하고 제 2항 지방비 보조금 교육■■ 특히 40엔 증액인 보조신청 할■■■■ 보조증액 시켜야 함으로 감(減).

제5관 기부금 제1항 소학교 배정 기부금인 10엔을 감(減)함. 선인(鮮人, 조선인)학동(學童)중 중퇴부터 퇴학함에 의해 감(減).

제6관 과년(過年)도 수입, 제1항 조합비 전년부터 체납이 되어 감(減).

제7관 잡수입 제1항 예금(預金) 이자예산에 비해 22엔 63전이 증가하고 전년도 중운용금(運用金)이 많아 증(增). 제2항 체납처분비, 피처분자 없음. 제3항 물품매각대(物品賣却代) 매각불용물(賣却不用物)■■■■.

이상과 같이 세입합계 2,455엔 14전 중에 예산액으로부터 190엔 14전을 증가함.

## 세출부

### 제1관 사무소비(事務所費)

제1항 보수(報酬)예산액(豫算額) 지출함. 증감(增減) 보임.

제2항 급료(給料)로 30엔을 감(減). 감하고 서기(書記) 3개월간 결원(缺員)에 의(依)함.

제3항 여비출장회수(旅費出張回數) 의(依)해 감(減).

제4항 용인료(庸人料) 용인 없음에 의해 감(減)함.

제5항 잡급(雜給)예산비 지출로의 증감 없음.

제6항 수용비(需用費) 제 약계현(約計現)을 ■■감(減)하고 내역(內譯)은 결산표부기와 같음.

제7항 잡비절약에 의해 감(減)한다.

### 제2관 회의비

제1항 비용변상(費用辨償).

제2항 수용비는 모두(共) 교사신축(校舍新築)에 ■연결함. 조합회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 초과액은 각 예비비로부터 각 1엔씩 지출함.

### 제3관 소학교비(小學校費)

제1항 급료로서 예산액은 24엔 50전을 감(減)하고 교장급료는 연도 최초부터 1승급(昇級)하여 2월간 늦어졌기 때문에 차액 감원(減員)함.

제2항 여비출장회수 및(及) 2회■의 예산은 63엔을 계상(計上)하고 1엔의 출장 ■■■의(依)해 감(減)이 없음.

제3항 잡급예산(雜給豫算) 대로 지출(支出) 변급(便給)은 감(減)이 없기 때문에 의(依)해 4엔의 감(減)이 없음.

제4항 수용비(需用費) 절약으로 계리(計理)하고 예산액(豫算額)으로부터 9엔 88전을 감(減)하고 내역(內譯)은 결산표(決算表) 부기(附記)한다.

제5항 수선비(修繕費) 예산액(豫算額)으로부터 1엔 94전의 증기(增起)를 보이며(見) 수선(修繕)■■■ 비교적 많음으로 인해서 예산 초과액은 예비비로부터 지출함.

제6항 잡비(雜費)예산액대로 지출하고 내역 예산표 부기(附記)와 같다.

### 제4관 국고납금(國庫納金) 훈도(訓導) ■봉급(俸給) ■■■■■■.

### 제5관 잡(비)지출(雜支出)

제1항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 피처분자(被處分者) 없어서 지출 없음.

제6관 예비비(豫備費)

제2관 3항 각 1엔. 제3관 제5항 1엔 94전 지출.

이상(以上)과 같이 세출합계 2,116엔 89전 ■■ 예산액으로부터 148엔 11전을 감(減)하기로 함.<sup>66)</sup>

조합비는 학교조합이 설립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자격은 우선 순수 일본인들로만 구성되며 해당 조합지구에서 거주해야만 한다. 즉, 학교조합의 설립목적이 식민지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의 교육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해도 일본인 모두가 가입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으며, 학교조합에서 운영하는 수업료와 학교조합과 관련된 일본인들의 각종 의무·권리 등의 규정 등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했다.<sup>67)</sup>

여기서 조합비는 호별(戶別)로 각 일본인 호수마다 부과하였다. 학교조합에서 조합비를 부과할 때에는 경제력을 갖춘 ‘독립 생계를 경영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그 자산 소득 및 생계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학교조합 총회에 출석이 가능한 ‘연령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조합비를 납부한 자’로 제한했다. 즉, 조합비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자를 우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68)</sup> 조합비 항목에서 추자도는 일본인 어업자들이 주시하는 어장이기 때문에 거주자 말고도 일시적으로 정주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어기(漁期)중에는 일시 거주자가 상당수였으며 그 까닭으로 예산액이 증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앞의 <표 8>에서 보면 세입항목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조합비와 보조금으로 항목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은 보조금이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과 지방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1,000엔, 지방비 보조금은 300엔이 책정되어 있다. 이중 국고보조금을 살펴보면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보다 더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입부 제5관 기부금 제1항을 보면 소학교 지정 기부금이 있는데 부기(附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기부자 퇴거에 의해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

66) 소화원년도 추자도학교조합 세입출결예산설명서, 1926, 86쪽 부록 <그림 3> 참조.

67)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23-124쪽.

68) 조미은, 위의 논문, 124쪽.

는 기부자는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 기부자로, 당시 추자도의 소학교가 일본인 자녀를 위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선인 학생이 취학했음을 알 수 있다.

예산표 설명서에서는 기부금 제1항 소학교 배정 기부금이 선인(鮮人), 즉 조선인 학동이 중퇴를 하여 10엔을 감액했다고 기록했다. 이것으로 보아 심상소학교는 일본인 학교지만 추자사회에서 경제적 혹은 일본인들과 협력관계를 맺는 일부 특수한 인물의 자녀는 일본인 학교에 통학했음을 알 수 있다. 세출항목 중 소학교비 잡급을 보면 보습과 비용 60엔을 지출했음이 확인된다. 또한 설명서의 조선인 아동 취학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그와 비슷한 정황을 확인되는데, 1925년 3월 31일자로 추자공립심상소학교에 보습과(補習科)를 설치했음을 공고하고 있다. 보습과는 조선인 전용의 별개 학급으로 보이며, 일본인 학생은 심상과를 다닌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인 공립보통학교에 보습과를 설치한 예는 있지만 일본인 심상소학교에 보습과를 설치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즉, 당시에 추자공립심상소학교에 조선인의 입학은 허가했지만 일제에 협력 혹은 특수한 관계에 있던 조선인 자녀들을 위해 별개의 학급을 신설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바로 보습과로 판단된다.<sup>69)</sup> 추자지역의 일본인 학교는 해방 이전까지 줄곧 내내 1개 학급만을 유지하였고 기타의 학급을 증설한 바는 없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정식으로 보습과를 설치하였다. 심상소학교의 학급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일본인 심상소학교내에 일부 조선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추자공립보통학교가 일제당국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기록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보습과를 기초로 하여 공립학교로 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1925년에 추자공립보통학교가 6월 30일에 설치되어 9월 1일에 개교하는 모습으로 보아 그 정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공립학교가 세워지기 이전에 많은 수의 사립학교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에서처럼 그것이 전신(前身)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보습과를 모태로 삼아 사립교육기관을 흡수함으로써 공립보통학교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69) 제주도, 『조선총독부 관보중 제주록』,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경신인쇄사, 1995, 128쪽, 1925년 4월 10일, 전라남도 고시 제32호, 1925년 3월 31부로 다음 공립소학교 보습과(補習科) 설치의 건 인가함, 1925년 4월 9일- 추자공립심상소학교 보습과, 조선총독부 전라남도지사 장헌식(張憲植).

다음은 <표 9>의 세출항목 분석 내용이다. 세출항목은 크게 사무소비, 회의비, 소학교비, 국고보조금, 잡지출,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사무소비와 소학교비가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무소비에서는 보수와 급료, 여비 등 당시의 지출 액수를 알 수 있다.

우선 사무소비 1항의 보수를 보면 관리자 보수를 20엔을 지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교조합의 관리자는 명예직이었지만 학교조합이 그 지역 거주 일본인의 중심단체였던 만큼 일본인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였을 것이다. 1926년 당시 추자도학교조합의 관리자는 니시자키 요시고로(西崎好五郎)로 다음해인 1927년에도 연임을 하고 있다. 니시자키 요시고로는 학교조합의 관리자 및 추자도어업조합의 조합장도 역임하였는데<sup>70)</sup> 즉, 니시자키 요시고로는 학교조합 관리자인 동시에 추자지역 어업조합의 책임자로서 추자지역 일본인 사회에서 핵심인물이었다.

추자도학교조합의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면 일부 재임의원들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된다. 학교조합관리자인 니시자키 요시고로(西崎好五郎)를 비롯해 니시자키 쇼타로(西崎庄太郎), 니시자키 이치사부로(西崎市三郎), 니시자키 가네에몬(西崎兼右衛門) 등 일부 의원들이 모두 ‘니시자키(西崎)’라는 씨명(氏名)을 가지고 있다. 니시자키 쇼타로는 니시자키 요시고로와 함께 조합관리자를 번갈아 역임하기도 하였는데, 니시자키 요시고로와 니시자키 쇼타로는 조선총독부 관보 중 추자도어업조합 기록에 자주 등장한다. 이들은 추자도어업조합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로서 조합장을 차례로 역임하고 있다.<sup>71)</sup> 니시자키 가네에몬(西崎兼右衛門)도 신분은 추자도 우편소장으로서 1925년도에 발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sup>72)</sup>

70) 제주도, 『조선총독부 관보중 제주록』,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경신인쇄사, 1995, 233쪽, 1933년 2월 16일. 추자도어업조합(楸子島漁業組合) 등기변경, 조합장 이동선(李東善)은 1932년 12월 16일로 임기만료하여 1932년 12월 2일 총대회에서 다음 자를 선출하여 1932년 12월 16일에 전라남도지사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함, 추자면 대서리 8번지 니시자키 요시고로(西崎好五郎), 1933년 1월 7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71) 제주도, 『조선총독부 관보중 제주록』,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경신인쇄사, 1995, 196쪽, 1930년 12월 5일. 어업조합(漁業組合) 설립등기, 명칭: 추자도어업조합(楸子島漁業組合). 주사무소: 추자면 대서리 4번지, 목적: 어업권을 취득하고 또는 어업권 대부분을 받아 조합원의 어업에 관한 공동시설을 시행함, 지구: 추자면 일원(一圓). 설립인가일: 1919년 3월 21일, 조합장 및 이사(理事), 감사(監事) 주소(住所), 성명: 추자면 대서리 36번지 조합장 이동선(李東善), 추자면 대서리 36번지 이사 진중두(田中斗), 추자면 대서리 40번지 감사 니시자키 쇼타로(西崎庄太郎), 추자면 목리 426번지 감사 김승배(金承培).

7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1925, 西崎兼右衛門 조선총독부직속기관 > 체신관서 > 부산우편국분장구내우편소 > 전라남도

일본인의 성명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로 각자가 성씨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조선인의 성명과는 달리 수가 많았다.<sup>73)</sup> 하지만 추자도학교조합의 일부 의원들을 보면 모두가 ‘니시자키’의 씨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 가족 혹은 한 가문의 구성원으로 보인다.

어청도에서도 다케베 시즈오(武部靜雄)를 통해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다. 다케베 시즈오(武部靜雄)는 부친인 다케베 타다요시(武部忠恕)의 뒤를 이어 어청도 우편소장으로 재임하였는데, 어청도 어업조합장 및 학교조합 관리자, 조선수산조합 어청도 출장소장, 전라북도 수산회 총대 등을 역임하면서 어청도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sup>74)</sup> 어청도도 수산업 관련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일본인들이 형성한 이주어촌지역은 이와 비슷한 환경을 띠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청도 외에도 경상북도 영일 등지에서 활동하던 나카타니 타케사부로(中谷竹三郎)와 하마다 코레카즈(濱田惟和)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핵심인물들이 지역사회에서 학교조합과 지역의회 등에서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학교조합이나 어업조합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세력임을 알 수 있다.<sup>75)</sup> 때문에, 추자지역의 니시자키 가문 구성원의 일부는 공직에 종사하는 인물들로서 추자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모두 추자사회에서 핵심산업인 어업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어업조합 및 학교조합 등을 이끌며 한 가문에서 그것을 독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항 급료는 서기(書記)에 대한 급료로서 당시 서기는 앞에서 언급한 추자도 우편소장인 니시자키 가네에몬(西崎兼右衛門)이다. 서기 한 명이 감축됨으로써 감액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서기도 한 명 이상을 고용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제3관 소학교비는 사무소비와 비슷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급료, 여비, 잡급, 수용비 등이다. 가장 많은 예산액 배정받은 항목은 급료와 잡급인데 급료

73) 박균섭, 「창씨개명의 장면 분석과 교육사 서술」,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6, 57-58쪽.

74) 이기복, 「일제하 ‘水産博覽會’ 와 조선 수산업의 동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11쪽.

75) 이기복, 위의 논문, 195-200쪽.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급료는 설명에 본봉(本俸), 즉 교사의 급료로써 추자공립심상소학교의 일본인 교사는 교장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1926년에는 남교사, 여교사 각각 1명씩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 교사들은 추자도가 도서(島嶼)지방임을 감안하였을 때 발령당시 기타의 수당을 받았을 것이다.

교육환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교사와 학생의 비율 차이이다. 교사 1인당 학생의 수는 일제초기에는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가 일제말기가 되면 조선인 학교가 일본인 학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조선인 학교의 구성을 보면 교장을 비롯해 일부 일본인 교사와 조선인 교사가 있었지만 일본인 학교는 순수 일본인으로만 구성되었다.

일제시기의 보통학교와 소학교의 교사는 훈도·축탁·강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은 훈도였다. 일본인 학교는 주로 훈도로 구성되는데 비해 조선인 보통학교는 상대적으로 축탁이 많았다. 앞의 세입항목에서 보듯이 제4관 국고보조금을 보면 훈도에게 예산을 지급했음을 볼 수 있다.

### Ⅲ. 학적부로 확인한 추자지역 조선인 초등교육의 실상

#### 1. 추자공립보통학교의 설립

본 장에서는 조선인 학교인 추자공립보통학교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적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학교는 1925년 6월 3일에 인가를 받아 9월 1일에 개교하고<sup>76)</sup> 상추자는 본교(本校)를, 하추자에는 분교(分校)를 각각 설립하였다. 이후 하추자 지역의 분교는 1941년 6월 10일에 신양국민학교로 개별 설립되었다. 추자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자 종래의 추자도의 조선인 교육을 담당하던 사립교육기관과 서당 등의 교육기능이 자연히 이관되었다.

추자공립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이었으며, 추자공립보통학교가 추자서국민학교와(본교) 신양국민학교(분교)로 전환하기 전까지 줄곧 유지되었다. 일제 당국에 의해 조선인 교육기관인 보통학교에는 일본인 교원이 배치되었는데, 추자지역의 경우 일본인 교원 1명과 조선인 교원이 2명 내지 4명 정도로 배치되었다. 교사는 여성이 없으며 줄곧 남자교원만 재직하였다. 일본인 대상의 추자공립심상소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고 더구나 여학생의 수도 적었음에도 일본인 여교사가 재직한 것으로 볼 때 교사 배정에도 차별을 두었다.

이들 교사들은 모두 훈도(訓導)로서 일본인 교원들은 대개 일본어 과목을 위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장은 모두 일본인으로 초기에는 일본인 학교인 추자심상소학교 교장이 겸직하였다. 학급 또한 설립 초창기인 1926년과 1927년에는 4학급이었다가 이후 줄곧 3개 학급을 유지하였다. 학생 수 또한 적게는 101명에서 많게는 180명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추자지역에 추자공립보통학교의 설립과정에서 그 위치를 두고 주민간의 대립 상황을 볼 수 있다. 추자도는 대체로 2개의 섬과 주변부의 무인도들로 구성되어

76) 제주도, 『조선총독부 관보중 제주록』,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경신인쇄사, 1995, 131쪽, 1925년 6월 10일 전라남도 고시 제60호, 1925년 6월 3일부로써 다음 공립보통학교 설치의 건 인가하였음, 1925년 6월 8일. 교명: 추자공립보통학교. 위치: 추자면 대서리, 조선총독부 전라남도지사 장헌식(張憲植).

있는데 당시 주민들은 상·하도에 대부분 거주하였다. 인구상황은 하추자 지역의 주민이 상추자 지역보다 다수를 점했지만 공립학교설립과정에서 본교가 아닌 분교가 설치되었다. 그 이유를 보면 구한말 이후 상추자 지역에 일본인이 거주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밀집·발달하였고, 일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립심상소학교도 이 지역에 먼저 들어서고 그 다음 공립보통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즉, 일본인에 의한 상추자 지역의 발달이 공립학교설립과정에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공립학교 또한 일제당국의 감독을 받으므로 추자도의 행정 중심지인 상추자도 대서리에 본교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신양국민학교 연혁지에는 당시 설립과정에 대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

(자) 서기 1925년 이래(以來) 추자도교육기관 설치문제로 상하도(上下島)가 대립적으로 그 설치장소(設置場所)를 다투어 열렬(熱)한 투쟁을 계속(繼續)한 바이다.

서기 1925년 6월 30일 추자공립보통학교가 설립인가(設立認可) 되매 대립적으로 분쟁(紛爭)이 되던 장소의 건(件)은 하도(下島)에 인가가 되기 때문에 상도(上島) 1학년 하도(下島) 2학년 4년제라는 본도(本島) 특수(特殊)의 교육기관이 된 것이다.

열렬(熱)히나 상도는 일찍이 일본인(日本人) 거주자가 많고 항구적(港口的)으로 보아도 지리적(地理的) 우수(優秀)한 환경을 갖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하도(下島)보다 초월(超越)한 상태에 있었기로 교육열(教育熱) 세력(勢力)이 상도(上島)로 집중, 교사설비등이 상도(上島)에 완비(完備)되는 상태에 따라 교장(校長) 주거지역(住居地域)이 상도(上島)가 되었던 것이다. 그 후의 정세(情勢)는 점차 상도(上島)가 유리한 입장으로 전개(展開)되고 하도(下島)는 반대(反對)로 퇴보(退步)의 일로(一路)를 걷고 있었다. 그리하여 하도(下島)는 1,2,3,4 학년을 수용(收容)하게 된 일학년(一學級) 단급제(單級制) 학교로 변천(變遷)된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하도(下島)는 호수(戶數)로 보거나 인구수(人口數)로 보거나 상도(上島)의 배(培)를 산(算)하는 처지인데 연(年) 입학난(入學難)은 증가(增加)되며 입학(入學)을 지원(志願)하는 부형(父兄)의 집심(集心)은 극도에 달(達)하는 일방(一方)이랴했다. 이러한 연고(緣故)로 하도인사(下島人士)가 상도(上島)로 아동(兒童)을 하숙(下宿)시켜 상도교(上島校)로 입학지원(入學志願)하는 자가 족출(簇出)된 것이다. 이에 이르러 하도(下島)에 신교설립(新校設立)을 갈망(渴望)하는 원성(怨聲)이 도처(到處)에 충만(充滿)하였다. 때마침 기회(機會)를 맞이하여 전선적(全鮮的, 전 조선적)으로 초등교(初等校) 제2차 확충설립인가계획(擴充設立認可計劃)이 발표(發表)됨에 본면(本面) 하도

유지(下島有志)로 기성회(期成會)를 조직(組織)하여 당국(當局)으로 인가신청(認可申請)을 한 바이다. 다행히 다년간(多年間) 도민(島民)이 갈망(渴望)하던 초등교(初等校) 설립인가(設立認可)도 1941년 6월에 실현(實現)이 되었다.<sup>77)</sup>

(자)의 내용을 보면 추자공립보통학교 설립당시 학교설치를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혁지에는 하도(下島)에 인가를 받아 상추자도 지역에 1학년 하추자도 지역에 2학년 4년제로 운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오기(誤記)로 보이며, 실제로는 상추자도 지역에 설치된 이후 일본인 거주로 인한 지역발달이 교육상황에 영향을 끼쳤음을 설명하고 있다. 『식민지교육정책사료집성』<sup>78)</sup>에는 1926년부터 1931년까지 상·하도 지역 합쳐 4개 학급을 신설하고 이후 3학급으로 줄곧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하추자 지역은 교육규모가 축소되고 상추자 지역에 대한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이 집중되면서 하추자 주민들도 상추자 지역으로 아동을 취학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학적부에도 소수의 아동들이 본교를 졸업하고 다시 신양국민학교로 편입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추자공립보통학교는 전신(前身)으로 기능하던 교육기관이 있지 않고 처음부터 공립으로 출발을 하였다고 전해지나, 앞서 언급했듯이 추자공립심상소학교에 설치된 보습과가 그 전신기능을 한 것으로 보이며 설립 이후 근대교육기관의 기능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립학교가 설립되자 이들 교육기관에서 수학했던 학생들을 보통학교로 입학시켜 초기의 학생모집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학적부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는데 제1회 졸업생을 4학년으로 입학시켜 다음해 졸업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종전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력을 인정하는 사례로써 이들 교육기관이 실제적으로 설립에 참여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추자공립보통학교의 설립과정으로 볼 때,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된다.

77) 신양초등학교, 『신양국민학교 연혁지』, 50-52쪽. 신양국민학교 연혁지는 인쇄본이 아닌 수기(手記)로 작성된 내용의 묶음 문서이다. 작성된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으며 후대로 갈수록 기록물을 첨부하는 형식이다. 이에 필자가 임의로 순서를 매기어 페이지를 지정하였다. 순서는 앞장부터 차례로 순차를 정하였다.

78) 조선총독부, 「식민지교육정책사료집성」 39 상, 『제6집 지방교육지』, 대학서원 영인, 1990, 「대정15년 전라남도교육 및 종교일반」 25쪽, 「소화 2년 전라남도 교육 및 종교일반」 38쪽, 「소화 6년 전라남도 교육 및 종교일반」 51쪽.

<표 10>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졸업인원

회차	입학연도	졸업연도	남	여	계
1	1925	1926	14	-	14
2	1925, 1926	1927	11	-	11
3	1925	1928	6	-	6
4	1925	1929	11	-	11
5	1925, 1926, 1927	1930	8	-	8
6	1926, 1927	1931	5	-	5
7	1928, 1930(3학년 편입)	1932	8	-	8
8	1928, 1929, 1930	1933	11	-	11
9	1928, 1929, 1930	1934	6	-	6
10	1929, 1930, 1931, 1933	1935	9	-	9
11	1930, 1931, 1932	1936	14	-	14
12	1931, 1932, 1933	1937	13	-	13
13	1932, 1933, 1934, 1937, 미상	1938	12	1	13
14	1933, 1934, 1935, 1937, 1938	1939	19	-	19
15	1934, 1935, 1936	1940	17	-	17
16	1936, 1937	1941	21	2	23
1(신양)	1937, 1938, 1943	1944	15	4	19
2(신양)	1938, 1939, 1940, 1941	1945	24	2	26
3(신양)	1939, 1940, 1941, 1942, 1946, 미상 4명	1946	36	9	45

자료: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학적부』(1926~1946)에서 발췌하여 작성.

추자공립보통학교 본교의 학적부 및 기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표 10>을 통해 분교와 신양국민학교의 학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졸업생 수를 비교하여 학교 교육관계 상황을 파악하였다. 추자공립보통학교분교 학적부를 살펴보면 1925년에 개교를 하여 다음해인 1926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1925년 1회부터 1937년 16회까지는 4년 과정이었으며 1941년에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가 신양국민학교로 분리되고 난 이후 6년제 학제로 편성되었다.

<표 10>을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이 졸업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 학생의 취학률은 상대적으로 일본인 학생들보다 낮았다. 일제시기 당시 조선인은 의무교육도 아니었으며 일본인 교육에 비해 조선인 공립보통학교는 재정을 충당하기도 어려웠다. 그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수업료로 인해 학업을 그만두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졸업인원이 재학생 수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아 취학을 했어도 경제 사정이나 다른 기타의 이유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입학연도가 각기 다른 이유는 처음 초창기에는 보통 같은 연령대의 또래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적었고, 또 편입 등 기타의 사유가 있었다. 같은 연도에 들어갔어도 학업성적으로 인한 진급불가(不進級) 등의 사례로 인해 졸업 시기가 서로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 2. 추자공립보통학교의 학적부 변동 상황

본 장에서 살펴보려는 학적부는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1회(1926)부터 신양국민학교 3회(1946)까지의 졸업생 학적부이다.<sup>79)</sup> 우리나라에 학적부가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신식 학교가 설립되면서부터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의 학적부는 1905년 이후 도입된 학적부로 학생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sup>80)</sup>

학적부는 학생의 학업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자료로서, 학생의 성명과 본적, 생년월일 및 주소, 학업성취도 등이 기재되었다. 이 외에도 학생 개인의 신상 명세와 보호자의 직업, 입학 전 교육, 가정생활 등이 기록되어 1차적인 기본 자료라 할 수 있겠다.<sup>81)</sup> 즉, 학적부 자료는 당시 학적부의 형식과 기록 내용은 물론 당시 학교 실태를 살펴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학적부는 법적으로 명시된 공식 기록부로 재학생의 성적 및 출결 사항, 신체의 상황, 가정환경, 학생의 졸업 이후의 취업 및 희망 등 학생의 기본적인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개인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학적부는 일제시기 조선교육령에 따라 여러 번 개정을 하게 되는데 각 시기마다 과목명이 바뀌기도 하고 기록 양식 자체도 새로 첨가하여 기재하기도 한다.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의 학적부에는 학생의 이름과 성적, 주소지와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기본적인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추자도는 상도(上島)와

79) 본 논문에서 분석한 학적부는 졸업생학적부이며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80) 김지순, 『학적부에 나타난 1910년대 통영공립보통학교의 학생생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0쪽.

81) 김태웅, 「우리동네 학교의 역사와 근대 교육」, 『지방사 연구 입문』, 역사문화학회, 민속원, 2008, 372쪽.

하도(下島)에 각각 학교가 들어섰는데 상추자도에는 추자공립보통학교를 하추자도에는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의 형태로 개교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학적부는 추자공립보통학교 학적부와 신양국민학교 학적부로 나뉘어 있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도에 거주하는 학생명단이 없는 점과 재학생 수 등을 비교해 본 결과, 이 학적부는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즉, 현재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의 학적부라고 볼 수 있겠다.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1회(1926)부터 16회(1941)까지의 학적부는 학생의 씨명(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입학·졸업연월일, 퇴학연월일, 퇴학사유와 보호자의 씨명, 직업, 아동과의 관계, 교과 성적과 신체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다.<sup>82)</sup> 초기의 학적부는 인적사항과 교과목을 중심으로 비교적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요소들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6회 졸업생 학적부는 1학년은 옛 학적부를 사용하며, 2, 3, 4학년은 개정된 학적부를 사용하였다.<sup>83)</sup> 개정된 학적부는 기존의 학적부를 토대로 그 항목이 더 세분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학생의 이름과 입학연월일, 그리고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본으로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와 함께 본적지가 추가되었고 교과목 또한 추가되며 기존의 과목도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또 뒷면에는 이전과 다르게 부기표가 생성되어 아동의 성행개평, 신체의 상황,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교육 정도와 보호자의 학생에 대한 교육관심 등을 볼 수 있다.<sup>84)</sup> 이 외 진학을 위한 진학소견<sup>85)</sup>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양초등학교 1회(1944)부터 3회(1946)의 학적부도 이전과 양식은 같으며 2회 학생의 학적부 부기표가 기존의 단편적 방식에서 서술형식으로 바뀌게 된다.<sup>86)</sup> 4회 졸업생의 학적부는 종합기록이 해방 이후의 기록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82) 부록 <그림 1> 참조, 82쪽.

83) 부록 <그림 1>, <그림 2> 참조, 82-83쪽.

84) 부록 <그림 3> 참조, 83쪽.

85)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졸업생의 학적부 진학소견란을 보면 해방 이전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해방 이후 진학소견란에 가사조력(家事助力), 중학원 희망, 상급학교 희망 등 졸업생의 지망사항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교육이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진학이 아닌 전쟁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86) 부록 <그림 4> 참조, 84쪽.

<표 11>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학적부 양식 변경 사항

내용	연도		부기표(附記表)
	1926~1938	1939~1946	
학생 인적사항	씨명, 생년월일, 주소, 입학연월일, 입학 전 경력, 졸업연월일, 퇴학연월일, 퇴학사유	씨명, 생년월일, 주소, 본적, 입학연월일, 입학 전의 경력, 졸업연월일, 퇴학연월일, 퇴학사유	성행개평(성격, 재간, 악벽, 장해 및 이상, 취 미기호, 언어, 동작, 용자), 신체의 상황 및 기 타의 소견(신체의 상황, 심신발달의 상황, 원 인, 소견), 가정환경(가족, 보호자의 직업, 동 (소) 교육에 대한 관심, 부, 모, 형제, 자매의 교육의 정도, 가족의 성격, 개평), 지망 및 기 타의 소견(진학선직의 지망, 소견) (1937년 이후)
보호자 인적사항	씨명, 주소, 직업, 아동과의 관계	씨명, 주소, 본적, 직업, 아동과의 관계	
학년제	6년(4년제)	6년(4년제, 6년제)	
학업성적	수신, 국어, 조선어, 한문, 산술, 역사, 지리, 이과, 창가, 체조, 도화, (직업)	수신, 국어(독방, 철방, 서방, 화방),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수공, 창가, 체조, 가사재봉(가사, 재봉), 조선어	
평가	합계, 평균, 조행	총점, 통약, 조행, 석차	
재학 중의 출석 및 결석	출석일수, 결석일수(병기, 사고)	출석일수, 결석일수(병기, 사고), 기인일수, 개평	
신체의 상황	발육(신체, 체중, 흉위, 개평), 영양, 척주, 시력 및 굴절 상태(좌,우), 색신, 안질, 청력, 이질, 치아, 기타 질병 이상, 감찰의 요부, 본인에 대한 주의	신체의 상황, 심신발달의 상황, 원인, 소견	
기타	비고	학급담임인, 비고	

자료: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학적부』(1926~1946)에서 발췌하여 작성.

학적부 양식의 변화를 보면 기본적인 양식에 몇 가지 항목이 추가되었다. 우선 학생 인적사항을 보면 1926년부터 1938년까지는 씨명, 생년월일, 주소, 입학연월일 등을 기재하였으나 1938년도 이후에는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와 더불어 본적(本籍)이 추가생성 되었다. 학년제는 줄곧 4년제 학제를 유지하다가 철저한 황국신민의 양성을 위한 국민학교령이 시행되면서<sup>87)</sup> 신양국민학교 1회(1944)부터는 6년제로 학제가 바뀌게 된다.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학적부에 기록된 교과목은 총 12과목이다. 1926년부터 1938년까지의 과목은 수신, 국어(일본어), 조선어, 한문, 산술, 역사, 지리, 이과, 창가, 체조, 도화와 선택과목으로 농업과 직업을 번갈아가며 학습하였다. 3회 졸업생부터는 농업과목이 개설되어 성적이 기록되었고, 제7회 졸업생부터는 농업대신 직업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1938년이후는 수신, 국어(독방·철방·서방·화방),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수공, 창가, 체조, 가사재봉(가사·재봉), 조선어로 과목이 수정되었다. 대체로 조선어 수업을 줄이고 일본어와 일본의 역사·지리 등의 시간을 늘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본인 학교와 유사한 내용을 했다.<sup>88)</sup>

1926년부터 1938년까지 재학했던 학생은 각 과목을 학년에 따라 수업을 받았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과목은 수신, 국어(일본어), 조선어, 산술, 창가, 체조이다. 수신은 도덕으로 일본의 황국사관에 기초한 제국신민을 육성하기 위한 일본 제국주의식 도덕기준을 가르치는 과목이며, 국어는 식민지 본국의 언어인 일본어이다. 일본어와 함께 언어는 조선어를 가르쳤으며 수학인 산술, 음악인 창가, 체육은 체조를 교습하였다. 이 교과목들과 함께 농업과 직업과목 및 도화(圖畫)도 개설하여 3, 4학년에 수업하였으며, 이과(理科)는 4학년 때만 가르쳤다.

1938년이 되면 열거한 교과목들과 함께 국사(일본사), 수공(手工), 가사재봉(家事裁縫, 여학생), 습자(習字) 과목이 추가되었다. 국사는 5, 6학년 시기에, 수공은 2학년과 4, 5, 6학년에 받았다. 이후 일제 말기로 갈수록 일부 교과목의 침식이 있었는데, 조선어는 과목에서 폐지되고 대신 무도(無道)와 작업 과목이 추가되어 점수가 기입되었다. 작업은 총점을 없애고 대신 그 자리에 점수를 매기었다. 교과목과 함께 조행(操行)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품행 등의 성적을 매겼는데, 점

87) 이경숙, 「모범인간의 탄생과 유통: 일제시대 학적부 분석」, 『한국교육』 34, 2007, 221쪽.

88) 이송희,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의 초등교육」, 『지역과 역사』 19호, 2006, 190-195쪽.

수 표시는 한자(漢字)로 숫자를 매겨 표시하고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합계와 평균을 표시하였다. 조행 평가는 갑(甲), 을(乙), 병(丙)으로 표기하고 1938년 이후 교과목이 추가된 시기에는 양(良) 등으로 표시하였다. 총점을 없앴으므로 학적부는 학교 성적에 대한 평가기능보다는 일제 말기 황국신민사관에 맞는 학생을 분별하고 통제하는 용도로 변화하였다.

이렇듯 학적부는 교과목과 성적의 표기와 더불어 각 가족 구성원의 학력 및 환경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교에서만 필요한 문서가 아니라 일종의 증명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학교는 학적부를 통해 가정환경과 학생 개인의 행동을 추출하여 황국신민의 자질이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즉, 학적부는 일제가 원하는 인간상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통제의 수단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일제강점기 동화와 차별 교육의 기초적인 면을 볼 수 있다.<sup>89)</sup>

### 3. 추자공립보통학교의 교육 실태와 동화정책의 시행

#### 1) 입학연령

보통학교령에 명시된 취학 연령은 8~14세로 입학은 누구든지 하되 되도록 14세에 수료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sup>90)</sup> 제1차 조선교육령 제10조에서는 입학연령을 8세 이상으로 상정했으나, 이후 제2차 조선교육령은 6세로 낮추어 해방 이전까지 유지하였다.<sup>91)</sup> 학적부에 기록된 학생연령의 처음은 대개 10대 중후반의 연령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령이 낮아진다. 하지만 후반부에도 7~8세의 아동과 더불어 10대 이상의 아동도 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보인다.

89) 이경숙, 「모범인간의 탄생과 유통: 일제시대 학적부 분석」, 『한국교육』 34, 2007, 220-221쪽.

90) 김민정, 「한말일제초 인천지역 초등교육의 도입과 전개-인천사립영화학교와 인천공립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8쪽.

91) 김지순, 「학적부에 나타난 1910년대 통영공립보통학교의 학생생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9쪽.

<표 12>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평균 입학연령

연령	입 학 회 차																			합계 (명)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신양 1회	신양 2회	신양 3회	
7세					1				1		1		1	1	1					6
8세				1	2	3		3		2	4	5	4	8		1		2		35
9세				1		2	2	2	4	6	9	8	5	3	2	3		2	4	53
10세				7	3		3	5						4	7	12	10	14	8	73
11세				1	1		3		1	1			3	3	7	7	2	2	5	36
12세			3	1	1			1									1	1	1	9
13세		3	1															2		6
14세		1																2		3
15세	2	1	1															1		5
16세	5	5	1														2			13
17세	2	1															2			5
18세	4																2			6
19세	1																			1
합계(명)	14	11	6	11	8	5	8	11	6	9	14	13	13	19	17	23	19	26	18	251
평균연령	16.8	15	13.3	10	9.5	8.4	10	9.5	9	9	8.6	8.6	9	9	10	10	12.7	10.7	10.1	10.48

자료: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학적부』(1926~1946)에서 발췌하여 작성.

<표 12>의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1회부터 신양국민학교 3회 졸업생을 분석해보면 가장 늦게 입학한 나이는 1925년 1회생으로 19살에 입학한 1명의 학생이 있다. 가장 어린 나이는 7세로 1929년 5회 1명, 1933년 9회에 1명, 1935년 11회 1명, 1937년 13회 1명, 1939년 15회에 1명 등 각각 5개년에 1명씩이 있었다. 이는 입학 전 교육인 종래의 교육이 나이차를 고려하지 않는 교수(教授)방식의 문제와 함께한다.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의 1회부터 4회까지의 입학생들은 2회 졸업생 중 1926년에 입학한 6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1925년 개교와 동시에 입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학년에 입학은 하였지만 학생들의 종전 교육 경험 등을 참고하여 학년을 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1회 졸업생들은 4학년의 성적 기록과 기타의 기록만 남아 있으며, 그 다음 2회 졸업생은 3, 4학년을 기록하는 모습에서 학년 차등교육을 한 것으로 보인다. 1회 졸업생의 입학 전 경력을 살펴보면 전원 한문(漢文)을 경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추자도에는 공립보통학교가 세워지기 이전에도 다양한 학습기관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학교를 설립하고 학습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시의 한문은 전통적인 서당 및 개량서당 등이 담당했었는데, 각 마을에 있던 전통 서당 혹은 개량서당 등의 신식 학교에서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력을 공립보통학교에서도 교육경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교육령에서 명시한 연령대에 비해 한참 늦은 나이에 입학한 사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보인다.

추자지역에는 개량서당격의 사립교육기관들이 공립보통학교가 세워진 뒤에도 한참동안 존속하였으며, 전통적인 한문 서당은 1940년대 초반까지 존속하였다. 이로 비추어 보아 추자도의 교육은 공립보통학교가 아니어도 학습이 가능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2) 입학 전의 교육형태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학적부에는 아동들의 입학 전 교육 경력 기록이 남아 있다. 1926년부터 1946까지의 기록 중 입학 전 기록이 남아있는 인원은 총 55명이다.

<표 13>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입학 전 교육경험

교육형태	한문	보통 학교	서당	사립 학교	분교 수료	분교 수료	외국소재학교	합계
인원	37	2	1	1	7	7	2	57
%	65	3.5	1.8	1.8	12.2	12.2	4	100

자료: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학적부』에서 편집. 각 회 차 상관없이 추자공립  
보통학교 분교 1회부터 신양국민학교 3회까지 발췌하여 작성함(1926~1946).

위의 <표 13>을 보면 가장 많은 교육 경험은 한문(漢文)으로 학적부에 교육 경력이 기록된 57명 중 37명의 학생으로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한문은 종래의 전통적인 서당에서도 학습을 담당했었고 근대화시기에 맞물려 개량서당 형식의 교육기관에서도 근대 과목들과 함께 교수(教授)했었다. 1회 졸업생은 모두 14명으로 이 14명 전원은 모두 입학 전 교육 경력이 한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입학 전 한문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 학생들이 취학했음을 보여주며, 당시 추자지역에 서당 및 신식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어진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마찬가지로 2회 졸업생 역시 총원 11명 모두가 입학 전 교육경력이 모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3회도 총원 6명이 모두 한문을 경험하고 있다. 4회까지 입학 전 교육 경력이 한문이 등장하며 이후 공립보통학교체제가 정착하자 아동들의 교육경력에 한문이 등장하지 않는다.

한문과 더불어 교육경력에 서당이란 항목이 출현하는데 한문과 서당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학적부 8회 졸업 기록에는 서당이란 기록이 등장하는데, 보통 생각하기에 한문과 서당은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 쉽다. 한문은 전통적인 교육을 지칭하는 단어이고 그 전통적인 한문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서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서당을 개량서당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개량서당에서는 일본어, 산술 등 신식과목과 함께 한문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는 확정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추자공립보통학교 학적부에서 보여주는 한문과 서당은 별개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우선 기록자가 한문과 서당을 구분해서 쓴 것이 첫째이며, 한문을 학습한 1회 졸업생의 경우 입학한 다음해에 바로 졸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전 그 종전교육경력을 인정해 주는 사례로써 종전교육

인정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전통적인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입학 전 신식교육을 받아 본 적도 없는 학생들을 기존교육기간도 채우지도 않고 4학년으로 바로 입학시켜 졸업을 하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근대시기의 신식교육과 전통교육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식교육으로의 바로 전환(轉換)은 어려움이 있으며 전통교육을 인정하고 학습을 시킨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정규 1학년 과정부터 밟지 않고 4학년으로 월반하여 교육이수를 끝마친다는 것은 보통의 사례로써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8회 졸업생 중 서당 출신자가 등장하는데 한문과 서당이 같은 방식의 전통교육이라면 이 두 양자를 굳이 구분해서 표기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서당출신의 8회 졸업생은 1930년 4월 1일에 추자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할 당시 편입시험을 치른 기록이 있으며, 이 서당출신 학생을 제외한 8회 졸업생 모두는 1928년 혹은 1929년에 입학하였다. 즉, 서당출신 졸업생이 1930년에 편입시험을 치르고 입학한 사실로 보아 보통학교에 편입하여 수학(修學)이 가능한지의 능력검증과정을 거쳤다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당시 추자지역에의 한문과 서당은 구분지어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보통학교 경험자이다. 보통학교 경험자는 3.5%로 같은 추자지역에 있던 보통학교를 수학(修學)한 학생은 아니며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보통학교 출신의 학생이다. 이 외부 보통학교 경험자는 7회와 14회 졸업생에 각각 1명씩 있다. 7회의 보통학교 경험자는 현 부산광역시 목도구 신선동에 있던 목도공립보통학교 출신으로,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전학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산에서 추자로 전학한 이유는 보호자인 아버지가 야소교(기독교) 전도사로써 추자지역의 선교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추자에 입도를 한 후 그 아들(방주)은 추자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음이 학적부에 나타난다.

이 외 다른 한명은 14회 졸업생으로 지금의 제주북초등학교의 전신(前身)인 제주북(北)소학교(제주공립보통학교)에서 전학을 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학교명이 소학교라 개칭(改稱)된 것은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인해 일본인과 조선인 학교명을 소학교로 통일한 데서 기인한다. 제주도 본도(本島)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고향으로 전학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보호자인 조부의 직

업이 상업인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로 인해 본도에서 학교를 수학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학생도 본적(本籍)이 추자면 목리로서 외지인은 아니며 비교적 넉넉한 경제력을 갖춘 가세(家勢)를 보인다.

보통학교 경험자와 더불어 사립학교 출신도 1명이 나타나고 있다. 10회 졸업자인 이 사립학교 출신자는 포항사립영흥학교(浦項私立永興學校)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추자공립보통학교로 전학을 왔다. 이 학교는 현 포항시 죽도동에 있는 포항영흥초등학교의 전신(前身)으로 해당 학생이 무슨 이유로 포항에 있는 사립학교를 다닌 것인지에 대한 이유는 단서가 없다. 학생의 본적은 추자도 출신이지만 타지에서의 교육 경험과 연결할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보호자의 직업 또한 농업으로 나타나 경제력을 가늠할 수도 없으며, 그 배경이 될 만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본적이 추자도이며 보호자 또한 친부(親父)가 아닌 백부(伯父)로 가족 혹은 원래 보호자와 목포로 갔다가 다시 추자도로 편입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어떠한 이유로 타지에서 학업 중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본교수료생(本校修了生) 7명으로서 상추자도 지역에 있던 추자서(西)심상소학교 본교(추자공립보통학교 본교) 출신자들은 일컫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추자지역은 공립학교가 1개교이지만 본교와 분교로 나뉘어 학사행정이 이루어졌다. 이 본교(本校) 수료생들은 추자공립보통학교 본교출신 학생들이다. 본교 수료생 7명은 학교를 수료하고 다시 분교(分校)에 입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13회 졸업생으로서 본교에서 3학년까지 수료하고 1937년에 들어와 다음해에 졸업하고 있다. 당시 하추자도에도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의 형태로 본교와 같은 학교명으로 하추자도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3년 수료를 마친 상태에서 1년을 남겨두고 분교로 돌아온 점은 예상하기 힘들다. 또한 하추자도에 분교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상추자도 지역의 학교를 다녔는지도 의문이다.

학적부에 기록된 주소를 살펴보면 보호자와 학생 모두 같은 동네인 하추자 신양리로, 같은 지역에 분교가 있는 상황에서 상추자도 본교를 다닐 필요성은 없었다. 다만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신양국민학교 연혁지에서 밝힌 바처럼 당시 사례로 보아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던 가정의 자녀들은 다소 비용이 발생하

더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는 모습으로 보인다.<sup>92)</sup> 판단컨데 신양국민학교 연혁지에서 서술했듯 취학의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본교로 자녀를 보내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는 열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의 13회 졸업생 1명 이외에 나머지 6명은 신양국민학교 2회 졸업생이다. 신양국민학교 2회 졸업생들은 하추자도 지역의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가 개별 학교로 인가·설립되어 신양국민학교로 개교를 하자 다시 입학한 사례들이다. 이전의 공립보통학교 시기는 4년의 학제로서 졸업하면 더 이상의 상급교육은 불가능했다.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6년제 보통학교를 마쳐야만 고등보통학교로 진학하는 등 상급고등 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제말기가 되면서 조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하였다. 일제는 중국과의 전쟁과 더불어 미국과의 전쟁으로 확전을 거듭한 결과 전황이 악화되었는데, 이에 일본 본토와 식민지인 조선에서는 사상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일제는 1941년 칙령 제148호에 의해 조선인의 보통학교(심상소학교)와 일본인의 심상소학교를 ‘황국신민의 학교’란 뜻의 국민학교로 개칭하게 된다. 1938년에 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차별을 없앤다고 하며 학교명칭을 심상소학교로 통일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였으며 조선인 교육기관인 보통학교가 4년제에서 6년제로 향상되는 학교는 소수였다. 하지만 일왕의 칙령 이후 일제의 필요에 의해 교육차별은 여전했지만 모든 국민학교는 6년제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시세에 맞춘 일제당국의 의도가 작용하면서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는 신양국민학교로 정식 인가·설립되었던 것이었다.

전(全) 조선에서 ‘충량한 황민화 교육’의 의도로 시작된 식민지 교육은 추자도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었다. 분교에서 4년을 졸업하고 추자도에서는 더 이상 상급교육을 받을 학교가 존재하지 않았고, 교육을 더 받기 위해서는 타지방으로의 출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선인의 교육은 보통학교 4년의 초등교육만을 이수하게 한 후 지역사회에서 일제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순응할 수 있는 ‘충량한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한 이유로 일

92) 신양초등학교, 『신양국민학교 연혁지』, 50-52쪽. 신양국민학교 연혁지는 인쇄본이 아닌 수기(手記)로 작성된 내용의 묶음 문서이다. 작성된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으며 후대로 갈수록 기록물을 첨부하는 형식이다. 이에 필자가 임의로 순서를 매기어 페이지를 지정하였다. 순서는 앞장부터 차례로 순차를 정하였다.

제 당국에서는 조선인의 고등 교육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후일 추자도의 졸업생은 신양국민학교가 6년제로 다시 개교를 하자 이전 4년제 학교에서 학업을 마쳤던 일부 학생들이 다시금 입학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음은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分校) 수료출신으로 모두 7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추자서(西)심상소학교 분교(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시기에 졸업하고 신양국민학교에 입학하는 사례이다. 이들은 1940년과 1941년에 졸업 혹은 수료를하여 입학하고 있으며 그 이전 졸업생이 입학을 한 경우도 있는데, 단지 학교 명칭만 보면 상추자도의 본교생이 편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양국민학교의 연혁지에는 일제당국이 종래의 4년 교육을 마친 추자서분교생을 본교(신양국민학교)로 편입시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졸업생 전부가 다시 편입학 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 비추어 보아 신양국민학교로의 편입학은 당시 일제당국의 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16회 졸업생인 新原□珍(朴□珍)과 新原□姬(朴□姬)등 일부 학생이 다시 입학한 사례가 확인되며, 연혁지에서 언급하듯이 일제말기의 학교정책이 학교 교육사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학 과정에 이들 일부 학생들은 집중편입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집중편입시험이 어떠한 형태의 시험이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으나, 입학한 학생의 보호자들이 추자도의 유력세력임을 감안하면 아마도 간단한 면접조사 혹은 상담 등이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것은 1920년대완 달리 일제말기는 일제가 조선의 아동을 학교로 몰아넣으며 ‘황국사상’을 주입시키고 ‘황국신민’으로 양성·통제시키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때문에 학교에 입학을 위한 정교한 테스트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조선각지와 제주도의 경우에도 6년제 국민학교와 부설 간이학교도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학적부에 기록된 시험은 아마도 보호자의 사상과 재산 정도 등을 참고했던 정도로 보인다.

### 3) 보호자의 직업

추자공립보통학교 학적부에서 주로 보이는 보호자의 직업은 농업이다. 처음 학적부상에 기록할 때는 단순히 농업이라고 표기했으나 신양국민학교 학적부에는

자작농, 소작농, 반농반상, 반농반어 등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농업만 종사하는 자 이외에도 상업과 어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14>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보호자의 직업 실태

회차	직업									
	농업	반농 반어	반농 반상	어업	상업	공업	종교인	공리 (公吏)	교원	계
1	13				1					14
2	8			3						11
3	4			1	1					6
4	7			2	2					11
5	4			4						8
6	2			3						5
7	3			3	1		1			8
8	7			4						11
9	4			2						6
10	5			3	1					9
11	10			4						14
12	9			4						13
13	10			2	1					13
14	16			1	1	1				19
15	17									17
16	17			2	1			1 <sup>93)</sup>	1	22
1 (신양)	11	1	1	4	1			1		19
2 (신양)	19	2		5						26
3 (신양)	15			2	1					18
합계	181	3	1	49	11	1	1	2	1	250
평균	72.4	1.2	0.4	19.6	4.4	0.4	0.4	0.8	0.4	11.11

자료: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학적부』(1926~1946)에서 발췌하여 작성.

<표 14>에서 보면 농업이 전체 평균의 72.4%로 추자공립보통학교에 기록된 보호자의 농업종사자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수치는 졸업생 학적부를 분석한 결과이나 당시 경제적 여건이 되는 가정의 학생이 졸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가정해 보았을 때, 보호자의 직업으로 농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순수 농업으로만 기록된 보호자의 경우와 반농

93) 분교 16회 '공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新原□萊(朴□萊)는 新原□姬(朴□姬), 新原正淳(朴正淳)의 보호자로 16회 졸업생중 두 명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상과 반농반어 등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학적부에 기록된 1926년부터 1946까지의 기간 동안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보호자 181명 중 자작농이라고 표기된 자는 31명이고 소작농은 1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1920년대 당시의 학적부에는 부모의 대한 기록은 직업만 기록되는 등 비중이 없었는데,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시기의 개정된 학적부에는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내선융화(內鮮融和)’와 ‘내선일체(內鮮一體)’로 사회를 통제하려는 일제의 정책의도가 학교에도 어김없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 기존에 기록된 학생성적 및 개인 신상을 포함하여 부모와 가정환경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성격까지 모두 표준화하여 일일이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국가가 학교라는 수단을 통해 학생을 표준화하고 통제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일제 당국의 의도한 ‘충량한 조선인의 양성’ 즉, ‘황국신민(皇國臣民)’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신양국민학교 1회 졸업생 중 농업이라고 분류된 보호자 11명중 1명은 자작농이며, 신양 2회 19명중 16명은 자작농, 1명은 소작농으로 분류되어 있다. 신양국민학교 3회 15명중 14명이 자작농이며 1명은 분류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가정환경 즉 부모에 대한 기록 또한 중요시 되어 직업에 대한 분류도 상세히 나뉘어졌을 거라고 본다. 이 외에 신양국민학교 1회 반농반어(半農半漁)가 1명이고 2회에는 2명이 기록되어 있다.

반농반상(半農半商)은 신양교 1회에 1명이 기록되어 있다. 반농반상으로 기록된 1명은 新原□萊(朴□萊)로 16회 졸업생 新原□珍(朴□珍)의 보호자이다.

그 다음 어업이 1회를 제외하고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상업에 종사하는 자도 있었다. 4회 졸업생 보호자 중 상업에 종사하는 자는 2명으로 1명은 건상(市商)이다. 건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보호자도 또한 朴□萊이다. 학적부 기록으로 보아 朴□萊는 상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농업을 겸하고 있는 인물이며, 신양국민학교 3회에도 상업에 종사하는 보호자가 등장한다. 전 기간을 들어 공업에 종사하는 자는 단 1명이 있다.

다음으로 종교인과 공리(公吏) 그리고 교원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직업과는 다

른 인물들로 공리 즉, 공무원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인이다. 종교인은 야소교(기독교) 전도사이다. 입학 전 교육형태에서 살펴본 보통학교 경험자인 7회 졸업생 方舟의 보호자로서 전도사 方啓聖이다. 현 하추자도 지역에는 신양교회가 있는데 아마도 방계성 전도사가 들어와서 활동을 한 결과 추자지역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은 추자공립보통학교의 교사로서 제주에서 전출되어 왔다. 아동은 徐□殷이며 보호자의 이름은 李□春이다. 1938년 제주도 남원교에서 전입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李□春의 직임은 훈도(訓導)로서 조선총독부 직원록에는 추자서심상소학교<sup>94)</sup>로 발령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95)</sup>

마지막 보호자의 직업은 공리(公吏)이다. 일제당국의 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있던 인물로 정확한 직업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름은 新原□萊(朴□萊)이며, 추자지역의 공직에 있던 인물로 유력인사로 판단된다.

보호자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어업이 뒤를 이었다. 즉, 전통적 직업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건상(巾商) 등 상업과 공업·종교인·공리(公吏)·교원 등 근대적 직업군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자도가 이러한 직업 환경을 가지게 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유배지역에서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의해 근대적 환경으로 바뀌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학적부를 분석해 보면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인물들만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아니며 각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자녀를 취학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4) 지방 유력집단 및 취학환경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16회 졸업생과 신양국민학교 졸업생 학적부의 양식 중 아동의 씨명(氏名)란을 보면 학생 모두는 조선식 ‘성(姓)’을 두 줄로 긋고 그 옆

94) 1938년 일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학교 명칭을 통일하였다. 하지만 소학교라는 명칭만 같을 뿐 일제는 일본인 교육기관에는 東南 등 글자를 붙혀 조선인 교육기관과 구별을 할 수 있게 두었다. 이로 인해 추자공립보통학교는 추자서(西)심상소학교로 종래의 추자공립심상소학교는 추자동(東)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다.

9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1939 李奉春 지방관서 >전라남도 >공립학교 >추자서(西)심상소학교 訓導 7

에다가 일본식 ‘씨(氏)’를 기재한 모습이 보인다. 이 시기에는 일부 학생들이 ‘창씨(創氏)’와 ‘개명(改名)’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창씨’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처음부터 일본식 이름을 기재하고 있는 인물들이 일부 보인다.

16회 졸업생 河村□郎(河□同)은 조선식 ‘성(姓)’과 ‘명(名)’을 모두 삭제하고 ‘창씨개명(創氏改名)’을 하였으며 張問□郎(張□培), 土原□一(黃□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6회 졸업생 新原□珍(朴□珍)과 新原□姬(朴□姬)도 16회 학적부에는 ‘창씨’만 기록되어 있으나, 신양국민학교 1회에서는 조선식 이름은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창씨’된 이름이 보인다. 다른 학생들이 조선식 ‘성(姓)’ 옆에 일본식 ‘창씨(創氏)’를 기재하는데 비해 ‘개명(改名)’은 아니지만 마치 처음부터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표 15>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16회 졸업생 보호자 실태

보호자	아동	학력	직업	지위
張□敏	張□培(張問□郎)	-	農業	-
河□秀	河□同(河村□郎)	-	漁業	-
朴景□	朴□珍(新原□珍)	漢文	商業	面協議會員 學務委員
朴□萊	朴□姬(新原□姬)	普通學校 卒業	公吏	-
黃□仲	黃□玉(土原□一)	漢文	農業	

자료: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학적부』(1941)에서 발췌하여 작성.

위의 <표 15>는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졸업생들과 그 보호자로서, 표의 학생들을 보면 모두 ‘창씨’와 혹은 ‘창씨개명’을 하고 있다.

일제는 전쟁이 더욱 확산되자 1939년 11월에 창씨개명을 공포하여 1940년 2월 11일부터 실시된 제령(制令)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과 제령 제20호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을 단행하여 강압정책으로 전 조선에 ‘창씨개명령’을 내려 조선인의 성과 이름을 박탈하고 일본식의 씨와 이름으로 고치게 했다. 16회 학적부는 ‘창씨개명령’이 시행된 1941년에 작성된 기록으로 창씨개명은 학교에서 먼저 강압적으로 시행되었다.

일제는 행정 및 학교, 새로이 조직된 ‘국민정신총동원운동(國民精神總動員運

動)’과 협력적인 조선의 지식인들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선전과 더불어 창씨개명 신청을 강요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창씨개명을 신청하지 않자 제령 제19호 부칙 3항에 따라서 종래의 ‘성’을 ‘씨’로 바꾸어 일방적인 호적정리를 단행하였다. 이에 나머지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창씨’를 당했다.<sup>96)</sup>

일제는 ‘창씨개명’을 위해 지방 행정조직을 동원함과 동시에 학교의 교장과 담임교사들을 활용하였다. 일제는 그 전위조직으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과 그 하부조직인 ‘애국반(愛國班)’으로 하여금 창씨개명 정책을 적극적 수행하게 하였다. 이는 학교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 예로 창씨하지 않은 사람의 자제는 각급학교의 입학과 전학을 거부하고, 창씨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사가 이유 없이 질책, 구타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게다가 창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1940년 3월 25일을 기해서 모든 학교가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 가입케 하여 ‘학교연맹(學校聯盟)’을 결성하고 ‘애국반’을 조직하여 조선총독부가 공고한 기한보다 학교가 정한 일정에 맞추어 학생들의 창씨개명을 강제하게 하였다.<sup>97)</sup>

16회 학적부를 살펴보면 학생은 모두 ‘창씨개명’을 하고 있는데 비해 보호자는 모두 조선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런 양상은 분교 16회부터 신양국민학교 학적부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창씨개명’을 하는 경우는 각 가정의 호주(戶主)가 신청을 해서 변경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씨명란에 ‘창씨’가 되어 있으면 보호자는 굳이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5>의 5명의 학생을 보면 新原□珍(朴□珍)과 新原□姬(朴□姬)가 ‘창씨’만을 하고 있는데 비해, 張問□郎(張□培)과 河村□郎(河□同), 土原□一(黃□玉)은 ‘창씨’와 ‘개명’을 모두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제당국은 지방의 유력자들을 포섭하여 지방행정체계를 이끌었다. 이들은 지방의 말단관리가 되어 지방에서 일제의 정책을 관철시켰다. 일제말기의 창씨개명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거나 독려활동을 했는데,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들 중에는 창씨와 함께 개명까지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sup>98)</sup> 하지만 張問□郎(張□培), 河村□郎(河□同), 土原□一(黃□玉)의 보호

9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0 전치체제와 민족운동』, 탐구당, 2003, 60쪽.

97) 구광모, 「창씨개명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국제정치논양』 제45집 4호, 2005, 45-46쪽.

자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 보호자의 직업군도 농업과 어업으로 전통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이로서 경제력에 대해 확실히 확인할 수 없다. 창씨만 한 新原□珍(朴□珍)과 新原□姬(朴□姬)의 보호자가 상업(면협의회원 학무위원)과 공리(公吏)로서 추자지역의 유력세력으로 비춰지는데 비해, 나머지 학생들의 보호자는 모두 평범한 주민들로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창씨’와는 달리 ‘개명’을 하려면 신청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이 존재하는데, ‘창씨’와는 다르게 ‘개명’을 하려면 다소 비용이 필요했다. ‘개명’을 하려면 개명 신청 이유를 첨부하여 본 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1인당 50전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했다. 즉, ‘개명’은 창씨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신고서를 내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창씨’는 피할 수 없는 의무이지만 ‘개명’은 선택사항인 것이다.<sup>98)</sup> 때문에, ‘개명’된 학생의 보호자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으며 일제와 협력 혹은 특수한 환경에 있는 인물들이라 생각된다. 土原□一(黃□玉)과 張問□郎(張□培)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신양국민학교 1회 졸업생 학적부에서 그 이름이 발견된다. 다음은 신양국민학교 1회 졸업생과 보호자이다.

<표 16> 신양국민학교 1회 졸업생 보호자 실태

보호자	아동	학력	직업	지위	재산
富永成□ (尹成□)	富永□學 (尹□學)	-	半農半漁	-	-
金岡□千 (金寶□)	金岡在□ (金在□)	-	農業	-	-
大岩□均 (朴□均)	大岩□云 (朴□云)	-	農業(自作農)	-	-
岩本□春 (李□春)	岩本□文 (李□文)	-	農業	-	-
河村□秀 (河□秀)	河村□郎 (河□同)	-	漁業	-	-

98) 최재성, 「‘창씨개명’과 친일 조선인의 협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7집, 2010, 370-377쪽.

99) 이대화, 「‘창씨개명’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승실사학』 제26집, 2011, 184쪽.

新原景□ (朴景□)	新原□珍 (朴□珍)	漢文	半農半商	面協議會員 學務委員	不動産: 田 5段歩, 林野 3段歩
新原□萊 (朴□萊)	新原□姬 (朴□姬)	普通學校 卒業	公吏	-	-

자료: 『신양국민학교 학적부』(1944)에서 발췌하여 작성.

위의 <표 16>은 모두 신양국민학교로 개편되기 이전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출신학생들이다. 분교 16회에서 보였던 新原□珍(朴□珍), 新原□姬(朴□姬), 河村□郎(河□同)가 다시금 등장하고 있는데, 신양국민학교 연혁지에서는 당국에서 추자서분교생(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생)을 본교(신양국민학교)로 편입시켜 2학년 5년 수용의 기형적 상태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00)</sup> 편입생 구성을 보면 앞서도 언급했듯이 추자지역의 유지세력과 전통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로써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자녀를 학교로 보낼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소유하거나 혹은 일제당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연혁지에서도 밝혔듯이 일제당국이 전신인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의 학생을 신양국민학교가 설립되자 다시금 입학시켰는데, 분교생 중 유일하게 7명만 다시 입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학생들의 졸업회차는 각기 달랐는데, 분교 16회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을 하는 이도 있는 반면, 13회 졸업생인 金岡在□(金在□)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이 학생들의 보호자는 비교적 여유 있는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일제당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로 생각된다.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16회와 신양국민학교 1회 졸업생 보호자 중에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인물인 河村□秀(河□秀), 新原景□(朴景□), 新原□萊(朴□萊)를 살펴보겠다.

河村□秀(河□秀)는 자녀의 분교 졸업 후 다시 신양국민학교로 입학시키고 있는데, 직업만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정보는 없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개명문제와 자녀의 취학문제로 보면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인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지방지배체제의 특징을 보면 도와 면의 통치(자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100) 신양초등학교, 『신양국민학교 연혁지』, 50-52쪽. 신양국민학교 연혁지는 인쇄본이 아닌 수기(手記)로 작성된 내용의 묶음 문서이다. 작성된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으며 후대로 갈수록 기록물을 첨부하는 형식이다. 이에 필자가 임의로 순서를 매기어 페이지를 지정하였다. 순서는 앞장부터 차례로 순차를 정하였다.

그 수단으로서 조선인 유력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101)</sup> 新原景□(朴景□)는 면협의회원 학무위원(面協議會員 學務委員)으로서 지방행정체계에서 중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학적부 기록 중 가정환경란에 보호자 新原景□(朴景□)의 배경이 설명되고 있는데 면호세등급(面戶稅等級) 12등으로 사회적 지위로서는 전 구장(區長)의 직인 면협의회원 학무위원임을 밝히고 있다. 新原景□(朴景□)가 재임한 면협의회는 1920년 7월 29일 제령(制令) 제1호 면제(面制) 개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면장의 자문기구(諮問機構)이다.<sup>102)</sup>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면의 면협의회원은 면민이 선거하고 기타의 면은 군수나 도사(島司)가 임명하게 되어 있었다.

제주는 관내 13개면에 관선(官選) 면협의회를 설치했지만, 면협의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면세(免稅)를 5원 이상 낼 수 있는 유지(有志)로서 제주도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았다.<sup>103)</sup> 이후 추자도의 면세는 연액 2원으로 낮추어 지지만 당시 일반인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sup>104)</sup> 新原景□(朴景□)의 職業 또한 半農半商으로서 주로 상업에 종사하여 높은 경제력을 소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추자공립보통학교 4회 졸업생 朴□珍의 보호자로서 직업이 건상(巾商)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신의 딸을 졸업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적부 가정환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아들의 학교 기록은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자녀 모두를(딸-朴□珍, 朴□珍)을 모두 학교에 보냈다는 것을 탄탄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新原景□(朴景□)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추자지역의 유지로서 실력을 행사했던 인물로 생각된다.

新原□萊(朴□萊)는 당시 추자도의 공리(公吏)로서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

101) 지수걸, 「근대 이행기 농촌사회 변동과 지방 유력자층의 정치·사회활동」,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下, 한국사연구회, 지식산업사, 2008, 296쪽.

102) 제주도, 『조선총독부 관보중 제주록』,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경신인쇄사, 1995, 147쪽, 1926년 10월 11일 전라남도 고시 제141호, 면제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면협의회원 정원 표준이 되는 각 면 인구(人口)를 다음과 같이 인정함, 1926년 10월 1일, 제주면: 38,765인. 중면: 9,443인. 동중면: 7,704인. 신우면: 20,960인. 좌면: 10,283인. 정의면: 10,165인. 구우면: 28,332인. 우면: 14,093인. 구좌면: 19,433인. 대정면: 15,526인. 서중면: 12,676인. 신좌면: 14,174인 추자면: 3,924인.

103) 정선영,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4쪽.

104) 제주도, 『조선총독부 관보중 제주록』,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경신인쇄사, 1995, 95쪽, 전라남도령 제 25호, 면제시행규칙 부칙(面制施行規則 附則) 제3항에 의하여 동(同) 시행규칙 제6조의 21항의 면협의 회원자격요건(面協議會員資格要件) 중 다음의 면부과금(面賦課金) 연액(年額)을 다음과 같이 낮춘, 3원으로 낮춘 면- 구우면, 우면, 서중면, 동중면, 2원으로 낮춘 면- 제주면, 대정면, 추자면, 1원으로 낮춘 면- 신우면, 중면, 좌면, 정의면, 신좌면, 구좌면.

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943년 조선총독부 관보 기록에는 新原□萊(朴□萊)도 추자도어업조합(楸子島漁業組合)의 부이사(副理事)직을 재임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sup>105)</sup> 공리라는 신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어업조합의 책임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제가 주도한 어업조합체계에 있는 인물로 생각된다.

다음은 신양국민학교 2회 졸업자 중 학생과 보호자이다.

<표 17> 신양국민학교 2회 졸업생 보호자 실태

보호자	아동	학력	직업	재산
橫山□來	橫山□珉	-	自作農	不動産: 田 15斗落, 畓10斗落, 林山 6段步, 動産: 2千円
新井□南	新井□南	-	半農半漁	不動産: 田 6斗落, 林野 2段步, 家 1軒
松原□元	松原□敦	無學	半農半漁	不動産: 船 1艘, 田 5斗落, 林野 1段步, 家 3軒, 動産: 千円
岩下□奉	岩下□夏	國語 (日本語)	漁業	不動産: 田 3斗落, 林野 半 段步, 家 1軒, 動産: 2千円, 생활정도 중류
池田□童	池田□海	-	-	不動産: 田 4斗落, 林野 2段, 家 1軒 動産: 5千円, 여유로운 생활
松井□南	松井□姬	-	父-無職 母-巫女	-

자료: 『신양국민학교 학적부』(1945)에서 발췌하여 작성.

<표 17>은 추자공립보통학교 본교 졸업생들이다. 보호자의 직업과 지위는 특별한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岩下□奉은 국어인 일본어를 습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나머지 보호자는 모두 학력이 없거나 무학(無學)으로서 교육을 받은 흔적도 없고 직업 또한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 다만 재산관계 내역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

105) 『조선총독부 관보』, 1943년 8월 3일, '법인조합등기', 추자도어업조합 변경, 이사 산본만평(山本萬平), 부이사(副理事) 신원□래(新原□萊)는 소화(昭和) 18년(1943) 6월 1일 사임을 하고, 동월(同月) 15일 다음(左) 자가 취임함, 이사 원촌영작(元村榮作) 제주도 추자면 대서리 5번지의 1, 부이사(副理事) 고전건작(高田建作) 동리(同里) 4번지, 소화(昭和) 18년(1943) 6월 18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우선 岩下□奉의 재산을 보면 부동산은 밭 3두락(斗落)과 임야 반(半) 단보(段步), 집이 1채로 동산은 2천원을 보유하고 있고, 생활정도는 중류정도의 수준이라고 기록되었다. 岩下□奉의 경제수준을 중류로 상정하고 나머지 보호자의 재산정도를 비교해 보면 松井□南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표 17>의 학생들의 본적을 보면 모두 하추자도가 본적지이며, 실제 거주지도 하추자도의 각 마을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생의 보호자는 자녀를 본교가 있는 상추자도에 보내어 학업을 받게 했다. 즉, 이들 또한 특별한 지위 소유가 확인되지 않지만, 대개 일제당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이 보통 많은 재산과 직위를 유지한 점에서 보면 이들 또한 그러한 공통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발견된다. 松井□姬의 가정환경 기록에는 보호자인 松井□南가 무직(無職)으로 낮은 생활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직업란에는 소작농(小作農)이라 표기되어 있다. 특이하게도 松井□姬 어머니의 직업이 기록되어 있다. 어머니는 무녀(巫女)로 가정환경란에 어머니는 무녀, 아버지는 무직으로 낮은 류의 가정이며 조부모로부터 이어 무녀를 가업(家業)으로 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천업(賤業)에 종사하는 자로 언제나 자제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기록되어 있다.

무업(巫業)을 하는 무당은 그 이전 조선시대에도 천시를 받았고 직업으로서 사회적으로는 제약을 많이 받는 직종이었다. 일제시기에도 무당은 미신적 요소로 치부되어 통제의 대상이었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1915년에 총독부령 제 83호로 「포교규칙(布教規則)」을 제정해 민간신앙도 단속과 통제를 했다.<sup>106)</sup> 이렇듯 식민지 조선에서 무속인들은 탄압의 대상이며 통제를 받아야 하는 집단으로 상징되어 있는데 松井□南의 모(母)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松井□姬의 보호자도 식민지 사회에서의 차별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자녀를 다시 학교로 입학시켜 일제당국으로부터 차별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sup>107)</sup>

106) 이필영, 「일제하 민간신앙의 지속과 변화-무속을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해안, 2004, 348쪽.

107) 이대화, 「'창씨개명'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승실사학』 제26집, 2011, 215쪽.

이처럼 2회 졸업자를 보면 대부분이 보호자가 비교적 안정된 경제력을 보유한 점이 자녀가 취학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자신이 처한 위치가 자녀에게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여 타개책으로 ‘창씨개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신양국민학교 3회 졸업생의 사례이다.

<표 18> 신양국민학교 3회 졸업생 보호자 실태

보호자	아동	학력	직업	지위	재산
朴□淑	木村□子 (朴□瑛)	-	商業 (酒類販賣)	學校評議員, 部落中心人物	-

자료: 『신양국민학교 학적부』(1946)에서 발췌하여 작성.

<표 18>은 신양국민학교 3회 보호자 표이다. 朴□淑은 주류판매를 하는 상인으로 학교의 평의원(評議員)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평의원이란 학교비의 사업 및 예산에 관해 부윤(府尹), 군수 또는 도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구의 성격으로 평의회를 두었는데 부(府)에서는 선거로 선출을 하였고, 군도(郡島)에서는 면협의회의원의 선거 후보자 중에서 군수 또는 도사가 임명을 하였다.<sup>108)</sup>

상업에 종사하며 경제적 상황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의원으로서 추자사회에 영향을 끼치던 유력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자사회에서 공직에 있는 보호자들이 대부분 창씨만을 하는 것에 비해 朴□淑은 자녀 朴□瑛을 木村□子로 개명까지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창씨와 개명을 모두한 학생의 보호자들이 모두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보면 예외적인 사례이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에서 창씨개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당시 일제황국사상이 학교에 침투하여 그 위세를 떨치고 있을 시기이므로, 학교평의원인 보호자가 일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여학생들의 사례를 보겠다.

108) 송애진, 『일제시기 공립학교의 재정과 운영-부산부의 학교비와 학교조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04, 8쪽;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일제시대사 연구실,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의 지방제도 관계법령 비교자료집』, 선인, 2010, 432쪽.

<표 19>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졸업생(여학생) 보호자 실태

보호자	아동	학력	직업	지위	비고
尹□助	尹□任		商業		
新原景□ (朴景□)	新原□珍 (朴□珍)	漢文	商業	面協議會員 學務委員	不動産: 田 5段步, 林野 3段步
新原□萊 (朴□萊)	新原□姬 (朴□姬)	普通學校 卒業	公吏		
松井□南	松井玉姬		小作農		모친은 巫女.
朴□近	朴□禮 (新田香禮)		漁業		아들은 없고, 자매들만 있는 까닭으로 딸의 교육에 열성임.
朴□淑	木村□子 (朴□瑛)		商業 (酒類販賣)	學校評議員	부락의 중심인물.
尹□文	尹□變 (尹藤□變)	漢文	農業 (自作農)		생활정도는 상류. 자녀교육에 열성. 오빠는 본교졸업, 부락에서 유망한 청년.

자료: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학적부』(1926~1946)에서 발췌하여 작성.

다음의 <표 19>는 추자공립보통학교 학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여학생 보호자를 편집한 것이다. 1926년부터 1939년까지 재학생 중에서 여학생은 14명을 시작으로 줄곧 10명 이하를 유지하다가 1937년부터 17명, 25명, 27명으로 늘어난다. 평균 12명의 여학생들이 취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학적부에 남아있는 여학생 졸업자는 7명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당시의 취학환경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여학생들의 보호자를 보면 상업이 3명, 공리(公吏)는 1명, 농업은 2명이고 나머지 1명은 어업이다. 여학생들의 보호자 또한 앞의 열거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례환경 또한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우선 新原景□(朴景□)·新原□萊(朴□萊)·朴□淑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일제당국의 일원으로 생각된다. 이와 별도로 朴□近·尹□文은 자녀교육의 열성과 경제적 배경 때문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다. 朴□近의 경우는 집안에 아들은 없고 딸만 여럿이 있어 딸의 교육에 관심을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尹□文의 경우 가정생활정도가 상류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적혀 있다. 오빠는 본교를 졸업하고 지역의 유망한 청년이라고 기재되었으며 실제로도 11회 졸업생인 尹□卜이 오빠로 이미 취학시킨 모습을 볼 수 있다. 집안의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교육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상 여학생들의 보호자는 대부분 경제력이 배경이 되며 공직을 가지고 있어서 취학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이들 ‘창씨개명’을 한 유력세력들은 높은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일제와 관계 혹은 특수한 위치에 있었다. 다른 지방에서도 상업 등 경제적으로 풍족한 계층이 지역에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처음부터 일제와 협력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민족과 일제 사이에서 동요하며 점차 일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즉, 처음부터 친일적 성향을 가진 인물을 제외한 다른 유력계층은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타협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sup>109)</sup>

추자지역의 유력계층인 新原景□(朴景□)·新原□萊(朴□萊)도 추자사회에서 경제력이 상당한 인물로 생각된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주요 요직(要職)인 면협의회의 학무위원과 공리(公吏)로서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지대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비교적 높은 경제력으로 자제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력과 함께 일제당국과 협력적인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녀인 新原□珍(朴□珍)과 新原□姬(朴□姬), 新原□淳(朴□淳)가 ‘창씨’를 이미 단행한 사실과 일제시기의 면의 지방행정조직원으로서 그 행정조직의 일원인 자신이 먼저 일제의 정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일제의 정책에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국의 정책대로 자녀들을 6년제 학교가 생기자 다시 입학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일제의 정책에 순응하였으며 신양국민학교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학교 정책에 있어서도 자신의 자녀를 편입학 시키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부응하고 있다.

109) 이준식, 「일제강점기 군산에서의 유력자집단의 추이와 활동」, 『東方學志』, 2005, 195쪽.

## 5) 학생의 성행개평(性行概評) 및 신체상황

학적부에는 성적에 관련된 기록 말고도 학생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학생의 ‘성행개평(性行概評)’이다. ‘성행개평’은 ‘황국신민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장소에서 아동의 일상생활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즉, 아동의 지적(知的), 정의적, 사회적 능력을 관찰하는 기록이다.<sup>110)</sup> 성행개평은 일제로 대표되는 학교당국의 시선이 매우 잘 담긴 기록관이며 학생의 성격과 능력 및 단점 등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이다.

성행개평은 1, 2차 조선교육령 시기 학적부에서는 기록되지 않다가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 이후 그 기록양식이 나타난다. 일제는 내선일체를 완성하고 황국신민화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1938년 3월 제3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고 이어 1943년에도 제4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황국의 도’에 입각한 국민연성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즉, 일제당국은 ‘일본어 교육’, ‘사상통제강화’, ‘전쟁협력’, ‘황국신민의 단련강화’ 등을 철저하게 교육시켜려 했다.<sup>111)</sup> 결국 성행개평과 신체의 상황도 이런 토대에서 기록되었다.

추자공립보통학교 학적부상에 처음 나타난 시기는 1938년 이후로서 제16회 졸업생부터 학생에 대한 성행개평이 이루어진다. 16회 졸업생의 성행개평은 부기표에 몇 가지의 항목을 설정하여 학생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성격, 재간, 악벽, 장애 및 이상, 취미 기호, 언어, 동작, 용자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재간 항목에는 ‘이해력 풍부’, ‘기억력 부족’ 등으로 기록하였다. 언어는 ‘명료’와 ‘명료하지 않음’으로 동작항목은 ‘활발’, ‘활발하지 않음’ 등으로 표현하고, 용자는 용모를 일컫는 것으로서 ‘바름’과 ‘바르지 않음’으로 나타내었다. 다만 성격란에는 ‘성질은 온순하며 내성적임’, ‘학업이 불성실하지만 향상(向上)을 보임’ 등 기록 내용을 더 자세히 나타냈다. 16회 학적부를 보면 성격란의 기록은 3명만 남아있으며, 재간과 언어, 동작, 용자는 비교적 많은 수의 학생이 기록이 되어 있다.

110) 이경숙, 「학적부 분석: 일제말기 학교가 기록한 ‘국민학생’의 삶, 희망, 현실」, 『교육철학』 제31집, 2007, 58쪽.

111) 허중, 『일제의 친일과 육성과 반민족 세력』,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경인문화사, 2009, 162-163쪽.

<표 20>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16회 졸업생 인성조사표

재간(才幹)		언어	
공부력 있음	2명	명료	10명
기억력 모자람(부족)	5명	불명료	4명
기억력 있음	1명	동작	
기억력 풍부	3명		
끈기력 있음	1명	기민(민첩)	1명
실행력 있음	3명	활발	6명
이해력 모자람	2명	조금 활발	1
이해력 있음	3명	불활발	2
이해력 풍부	1명	조금 불활발	2
용자(容姿)			
바름	6명		
바르지 않음	2명		

자료: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학적부』(1941)에서 발췌하여 작성.

16회 졸업생 학적부에 처음 등장한 성행개평은 신양국민학교 1회, 2회, 3회 졸업생 기록부터 그 양상을 달리 한다. 기존의 성행개평이 기준이 되는 몇 가지 항목을 만들어 그 범주안에 기록하려 했다면 신양국민학교 학적부에 기록된 성행개평은 그 범위를 더욱 넓혔다.

(차) 내성적이고(內氣) 말 수가 적고 충실근면함. 응용력이 풍부하고 공작(工作)에 창의적이며 궁리, 고안 능력이 뚜렷이 드러나 보인다. 용모는 단정하고 좋지 않은 습관이 없음(5학년).

신경질적이고 내성적(內氣)임. 말 수가 적고 충실근면하다. 응용력에 뛰어나고 공작가사(工作家事) 등에 있어서는 어른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라고 들을 정도로 해야림이 있다. 용모는 단정하고 좋지 않은 습관이 없음(6학년)<sup>112)</sup>

(카) 작업중은 말이 없고 일을 하는 데는 열중함. 언어는 명료하고 말투를 좋게함. 성질은 온아(溫雅)하나 기백이 풍부함(5학년).

침착, 온순, 이해(理會), 기억 모두 좋음. 애국반장(愛國班長)으로서 통솔력이 뛰

112) 『신양국민학교 1회 학적부 (차)』: 「內氣ニシテ言葉數少ク忠實勤勉ナリ. 應用力ニ富ミ工作ニ於テハ創意工夫ノ能モ 顯著ニ見ユ 容姿ハ端正ニシテ惡癖ナシ(5學年), 神經質ニシテ內氣ナリ言葉數少ク忠實勤勉ナリ. 應用力ニ秀デ工作家事等ニ於テハ大人モ及ベヌ程氣ガキクテキル. 容姿端正ニシテ惡癖ナシ(6學年)」.

어나다. 공부(勉強)는 열심이며 경기(競技)를 좋아함(6학년)<sup>113)</sup>

(타) 쾌활하며 명랑하다. 기분이 신경질적이며 선생의 해답(解答)이 자기 의견에 합치(合致)않을 경우에는 질의하는 경우도 있음. 이해와 기억력이 풍부하며 학예회에는 즐겨 출연함(5학년)

쾌활하고 명랑하나 다소(多少)의 신경질. 때때로 선생의 질문에 반응할 때도 있음. 이해력은 특히 독서력에 우수함. 통솔력이 풍성(6학년, 해방 이후)<sup>114)</sup>

(차), (카), (타)는 신양국민학교 1, 2, 3회 일부 졸업생의 성행개평이다. 위의 성행개평을 보면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16회의 졸업생 성행개평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우선 기록방식이 단편적인 목차에 대한 기록이 아닌 문장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위의 성행개평들을 살펴보면 학생의 성격이 주로 언급되고 다음은 학업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내용 중에 특이한 점으로는 당시 시기상과 맞물리는 기록도 등장하고 있다. 바로 애국반장과 통솔력에 대한 언급이다.

애국반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조직망 가운데 최말단의 조직으로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세부적인 지침과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sup>115)</sup> 당시 기록된 시기는 일제말기로서 일제의 황국사상화가 학교 내부까지 침투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시기였다. 학교는 학업에 대한 기능보다는 전쟁수행에 적합한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고, 학교는 ‘시세에 적합한 황국신민’을 길러내기 위해 학생 개개인 성격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 성행개평과 더불어 중요한 항목은 학생의 신체상황이다. 신체상황에 대한 기록이 중요하게 등장한 이유는 전쟁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일제는 만주사변

113) 『신양국민학교 2회 학적부 (카)』: 「作業中ハ無言ニテ仕事ニ熱中ス. 言語ハ明瞭ニシテ話方ヲヨクス. 性質溫雅ナ中ニモ氣迫ニ富ム」(5學年), 沈着, 溫順, 理會, 記憶 共ニヨク愛國班長ニシテ統率力ニ秀デテキル. 勉強ハ熱心ニシテ競技ヲ好ム(6學年)」.

114) 『신양국민학교 3회 학적부 (타)』: 「快活ニシテ明朗ナリ. 幾分神經質 堂シ先生ノ解答ガ自分ノ意見ニ合致シナイ場合ハ壹面シテ質疑スルコトアリ理解力, 記憶力ニ富シ學藝會ニハ好シテ出演ス」(5學年)」.

115) 朴成淑, 『日帝의 「國民精神總動員運動」의 性格에 關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25쪽.

이후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중국에서의 전선(戰線)이 확대되고 있었고 전장이 넓어짐에 따라 황군, 즉 천황의 군대에 동원할 병사의 수급이 많아지게 되었다. 중일전쟁 말고도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의 확전으로 병사뿐만 아니라 전쟁물자를 생산할 노무자도 긴급을 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식민지 조선학생들의 전반적인 신체상황이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관리되었다. 즉, 일제는 학생의 몸을 중요 요소로 각인하고 있었다. 신체상황의 항목에는 5가지의 유형별로 나누어 학생을 평가하였다.

<표 21>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16회 신체상황

가장 양호	조금 양호	보통	조금 불량	불량
9명	1명	9명	1명	-

자료: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학적부』(1941)에서 발췌하여 작성.

표에서 보듯이 당시 학생들은 5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신체를 평가받았다. 위에 <표 21>은 5가지 유형 중에서 4가지의 유형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가장 양호’와 ‘보통’이 각각 9명씩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방식의 신체상황은 신양국민학교 1회 학적부에서 개정된 방식이 적용된다. 다음은 신양국민학교 1회 졸업생 중 신체상황 기록이 남아있는 졸업생이다.

<표 22> 신체상황표 기록방식

기존의 기록방식		새로운 기록 방식	
가장 좋음	2명	시각 이상 없음	1명
건강함		청각 바름	
보통	6명	체질(건강) 양호	
이상없음		영양 불량	1명(※)
조금 양호	1명(※)		
조금 불량	2명		
보통	1명		

자료: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학적부』(1926~1946)에서 발췌하여 작성. (※)는

동일 인물임. 기존의 방식은 분교 16회부터 시작해서 신양국민학교 1회 졸업생 중 편입생을 제외하고 1회까지 유지되었으며, 신양국민학교 2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기재되었다.

신양국민학교 1회 학적부에는 각 항목이 삭제되고 학년마다 종합적으로 신체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1회 학적부에는 성격, 재간, 악벽, 장애 및 이상, 취미 기호, 언어, 동작, 용자 등이 모두 성행개평으로 함께 설명되고 있으며, 신체의 상황도 이전에 신체의 상황, 심신발달의 상황, 원인, 소견으로 나뉘던 항목이 이 시기에 들어서서는 신체의 상황 및 기타 소견으로 통일되었다. 가정환경도 가족, 보호자의 직업, 보호자의 교육에 대한 관심, 교육의 정도(부, 모, 형제, 자매), 가족의 성행, 환경으로 나누었던 것을 가정환경으로 통일되었다.

이는 신체의 상황 및 기타 소견란도 마찬가지이다. 신체의 상황, 신체발달의 상황, 원인, 소견으로 나뉘어 있던 항목이 사라지고 ‘건강한 신체임’, ‘이상 없음’ 등으로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전부 이 방식대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새로운 학적부 성행개평을 쓰는 학생은 신양국민학교로 다시 편입한 학생들로서 이들은 성행개평을 평가하는 표가 아예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새로운 양식으로 적용되어 있다. 편입생 외의 학생은 이전부터 쓰인 학적부 양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보면 학생들의 성행개평을 전 학년 모두 기록하지는 않았다. 1학년을 기록하고 3학년을 기록한다든지 4, 5, 6학년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5, 6학년 기록은 거의 모든 학생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 수급과 관계가 깊다고 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16회 졸업생 학적부 양식을 쓰는 학생은 성행개평란에서도 성격과 재간을 구분하여 나뉘어 기록을 하며 그렇지 않은 학생은 성격란에 해당 학생의 성격과 함께 학습능력과 용모 등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표 23> 신양국민학교 2회 신체상황표

연번	상태 기술
1	건강함(4학년), 건강한 신체(5학년), 신체엔 이상이 없고 건강한 신체임(6학년)
2	이상 없음(4학년), 조금 약하게 보임(5학년), 전 학년에 비해서 건강한 신체임(6학년).
3	안색이 창백. 조금 건강하지 못함(1, 4학년), 조금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임(5학년), 체격도 신장되어 보임. 건강한 신체임(6학년).
4	보통임(1학년), 빈혈기운이 있었으나 건강이 회복되었음(4학년), 건강한 신체임(5, 6학년).
5	신체건강으로서 상■■■■(1학년). 체력 검사에 합격함(4학년). 신체강건 하므로 교육도 양호함(5학년). 신체 강건 함으로서 체력검정에 자격이 있음(6학년).
6	조금 건강함(1학년), 건강하지 않음. 학기 중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4학년), 신체 약함(5학년), 조금 건강함(6학년).
7	안색이 창백하며 건강하지 않음(1학년), 안색이 창백하며 눈에 이상이 있음(4학년), 오른쪽 눈의 각막염 외에는 이상 없음. 신체 건강(5, 6학년).
8	건강함(1,4학년), 건강한 신체로서 기타의 신체 이상도 인식함, 소견은 건강한 신체임(5학년),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력이 풍부함(6학년).
9	외견상 허약아동이지만 조금 건강하면(1학년), 신체건강(5, 6학년).
10	보통임(1학년), 이상 없음(4학년), 건강한 신체임(5, 6학년).
11	조금양호(2학년), 건강한 신체임(5, 6학년).

자료: 『신양국민학교 학적부(1945)』에서 발췌하여 작성.

<표 23>은 신양국민학교 2회 졸업생 일부의 신체상황 기록이다. 2회 졸업생은 학사과정에서 재수(再修)를 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로운 학적부에 기입을 했다. 재수한 2명은 각각 1940년과 1943년에 한 학년씩 유급(再修)되어 예전 양식의 학적부를 그대로 사용을 했으며, 신 학적부로 바뀌면서 항목이 통일된 것처럼 기록방식도 종합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신체의 상황은 앞서 1회의 학적부와 비슷하지만 더 자세히 쓴 흔적을 살필 수가 있다.

<표>의 내용을 보면 ‘건강함’, ‘이상 없음’ 등 단순한 표현과 함께 ‘빈혈 기운이 있었으나 건강이 회복되었음’, ‘신체 건강함으로 교육도 양호함’, ‘신체 건강함으로 체력검정에 자격이 있음’, ‘안색이 창백하며 눈에 이상이 있음’, ‘오른쪽 눈의

각막염 외 이상 없음’,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력이 풍부함’ 등 신체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어떠한 상태로 변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이전 기록에는 기술되지 않던 기록방법으로 일제가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의 신체를 통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제는 학교에서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人力)을 징발하기 위해 신체검사와 신체단련을 중요시했다. 이후 중일전쟁 등 전쟁이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져 조선총독부에서는 1939년 5월 30일에 「생도·아동의 체력증진에 관한 건」을 지시한다.<sup>116)</sup> 2회 졸업생부터는 그 이전부터 일제가 주도한 황국사관이 더욱 노골화되고 이는 학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전쟁이 확대되고 사회적으로도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팽배해져 전시에 필요한 병사와 노무자의 생산 등 강건한 신체의 국민 양성이 제일의 목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6) 포상정책

포상제도는 학교에서 학생의 성적과 품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요인이다. 학적부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포상내역이 등장한다. 상의 명칭은 품행방정상·우등상·학력우등상·학업우등상·학력우등품행방정상·정근상·개근상·반장상·지사상(知事賞)·도사상(島司賞)·근로작업우량상이다. 품행방정상과 우등상은 성적과 품행이 모범이 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상이며, 지사상과 도사상은 해당 학교가 속한 행정의 장(長)이 주는 상이다. 지사상이라는 명칭으로 보아 전라남도지사가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표행상이며, 도사상은 제주도사가 수여한 상으로 보인다. 학생의 수상내역은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12, 13회에 각각 2명씩 나타나고, 1937년을 시작으로 일제말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수상을 한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경영할 때 일반적으로는 차별정책을 펼쳤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선을 내지화(內地化) 즉, 일본화를 위해 강력하게 동화정책도 추구하였다.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체제에 있어서 차별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동화정

116) 이경숙, 「학적부 분석: 일제말기 학교가 기록한 ‘국민학생’의 삶, 희망, 현실」, 『교육철학』 제31집, 2007, 61쪽.

책은 그렇지 않다. 일제는 조선을 지배하는데 있어 강력한 차별과 동화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서로 모순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sup>117)</sup> 하지만 이 모순된 정책을 일제는 강점시작부터 일제말기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식민지배의 짧은 기간 동안 조선인이 겪은 충격은 적지 않다. 이러한 차별과 동화정책은 식민교육기관인 학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보통학교(국민학교)는 식민지 조선인을 일본인화 하여 황국신민으로 만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일제말기에 이르면 일제는 학교를 통해서도 전시체제에 적합한 황국신민아동을 육성하는데 주력한다. 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상을 줌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해 황국신민사상을 고취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즉, 상은 학생의 도덕실천과 훈육평가를 위한 척도의 기능을 하였다.<sup>118)</sup>

<표 24>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졸업생 수상내역

수상명(受賞名)	인원	비고
우등상	10명	
학력우등품행방정상	2명	수상자는 상과 함께 상품을 수여함
품행방정상	2명	
지사상(知事賞)	2명	
도사상(島司賞)	1명	
반장상	2명	
근로작업우량상	1명	
합계	20명	

자료: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학적부』에서 발췌하여 작성(1926~1946).

학교에서 수여하는 각종 상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성적에 대한 우등상이다. 학교는 배움의 장소이고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받는 성적 우등상은 같은 학교 내의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성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수여하는 우등상은 구한말 이전부터 있어왔고 이는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sup>119)</sup>

117)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삶과 민족운동』, 景仁文化社, 2005, 86쪽.

11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연세국학총서』 36, 2004, 524쪽.

119) 이경숙, 「학적부 분석: 일제말기 학교가 기록한 '국민학생'의 삶, 희망, 현실」, 『교육철학』 제31집, 2007, 58쪽.

일제강점시기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와 신양국민학교 학적부에서 상을 받은 학생은 총 20명이다. <표 24>에서 우등상은 9명으로 학적부에는 학력우등상과 학업우등상, 우등상으로 명칭이 나뉘어 있다. 학력우등품행방정상은 성적뿐만 아니라 품행자질까지도 합친 종합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이며 총 2명이 상을 받았다. 이 외에도 품행방정상 2명, 지사상 2명 및 도사상 1명, 반장상 2명 그리고 근로작업우량상 1명이 있다.

처음 상을 받은 학생은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12회 졸업생 2명이다. 2명의 학생 모두 졸업해인 1937년에 상을 받았는데 1명은 지사상과 우등상을 동시에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우등상만을 수상했다. 이들이 받은 상의 내역으로 보아 학교 재학시기에는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2회 학생 외에 신양국민학교 2회 졸업생 중에도 품행방정, 지사상 및 우등상을 받은 학생의 성행개평을 보면 다른 학생에 비해 평가가 좋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은 품행방정과 지사상을 받은 학생의 성행개평이다.

(과) 성격은 활발하며 명랑함. 말은 박력이 풍부하고 또 교우와 방법(方法)도 능숙하다(5학년).

성격은 명랑하고 활달하며 어른 앞에서도 정정당당한 의견을 말하고 또 아동애 국반장으로 통솔력도 뛰어나다. 또 순진하고 교우와도 사이가 좋다(6학년)<sup>120)</sup>

(하) 부단히 침묵을 지켰고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실행하며 용의단정으로서 면학, 작업 모두 열심이다. 또 급장으로서 급중(級中) 개개인의 인망을 모으는데 성실이 있다(5학년).

말이 없고 온순하며 학업에 열심이며 특히 운동을 좋아함. 학급의 모범생으로 공부에 힘쓰며 급장으로서도 통솔력이 뛰어나다(6학년)<sup>121)</sup>

(과)의 학생은 품행방정상을 받은 학생으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승부욕이 있고

120) 『신양국민학교 2회 학적부 (과)』: 「性格潑ニシテ明朗ナリ. 話方ハ迫力ニ富ミ又交友ノ方法モ上手ナリ(5學年), 性質明朗闊達. 大人ノ前ニ於テモ正々富々意見ヲ述ベ又兒童愛國班長トシテ統率力ニモ秀デニキル. 又無邪氣ニシテ交友ヲ好ム(6學年)」.

121) 『신양국민학교 2회 학적부 (하)』: 「不斷沈黙ヲ守リ命令サレタコトハヨク實行スル容儀端正ニシテ勉學作業共ニ熱心ナリ又級長トシテ級中一人人望ヲ集メア居リヒ眞面目ナリ(5學年), 無口溫順ニシテ學業ニ熱ヲ特チ運動ヲ好ム. 級中模範生トシテ兒童ヨリ尊敬セラレ級長トシテモ統率力ニ勝レチキル(6學年)」.

성격도 활발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이 학생이 아동애국반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만연하던 총동원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학생으로서 학급을 선도하고 있다.

(하)는 도지사(道知事)상을 받은 학생의 기록으로 용모에 위엄이 있으며 좋은 성적과 급장으로서의 인망, 명령에 잘 순응하며 통솔력이 뛰어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파)의 내용은 학급 내에서 학교의 명령을 잘 수행하며 성적이 뛰어난 학생을 반장으로 삼아 급우들을 통제하게 하여, 학급을 모범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제말기 전시정책에 따라 시행된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주요 직급에 있는 학생을 도지사가 상을 수여해서 학교에서 황국사관을 고취시키며 확산하고 있다.

학생이 받은 상중에는 특이한 명칭의 수상 기록이 있다. 바로 근로작업우량상으로서 근로 작업에 우수한 학생을 위해 주는 상으로 생각된다.

(거)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세며 지는 것을 싫어함. 두뇌는 명철하지 않아도 원기 발랄하고 기백은 풍부함(5학년).

적을 만나면 일전도 피하지 않는 용감한 투쟁정신이 풍부. 그러나 기억과 이해는 부족함(6학년)<sup>122)</sup>

(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적은 뛰어나지 않으며 고집이 강한 반면, 일은 열심히 하고 용감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시기적 상황에 맞추어진 학생상으로 보이며, 비록 공부는 뛰어나지 않더라도 용감하고 말을 잘 듣는 학생이면 우수한 학생으로서 포상하고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설정한 것이다. 일제말기에 접어들수록 식민지 조선사회는 일제의 의해 노동력마저 징발되는데, 학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학생동원은 국민학교 고등과 이상부터 근로 작업에 동원되었으며 초등과는 해당 사항에서 제외되었다.<sup>123)</sup> 위에서 말하는 근로작업우량상은 동원작업에 의해 실제적으로 주어진 상이 아니라 당시 전시체제의 학교에서 작업 교과목의 우수라든지 정책구호상의 표창으로 생각되어진다. 즉, 당시의 전시상황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122) 『신양국민학교 2회 학적부 (거)』: 「膽汁質ヲ帶ジ負ケズ嫌ヒナリ. 頭腦ハ明哲ナラザレド元氣潑刺 氣迫ニ富ム(5학년), 癢ニ觸レバ一戰モ避モザル敢闘精神ハ富ム. シカシ記憶理會ニハ乏シ(6학년)」.

123) 辛珠栢, 「日帝의 教育政策과 學生의 勤勞動員」, 『歷史教育』 78, 2001, 90-91쪽.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일제는 학교에서 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쟁시  
국에 동참하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아동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

일제는 학교의 상장제도를 통해 황국신민사관을 주입시키는 모습을 확인하였  
다. 수여받은 학생은 학급에서 모범적이며 다른 학생들보다는 우수한 학생으로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를 통해 모범적인 황국신민의 모습을 대내외에 나  
타낼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학교는 조선인 학생들을 통제하고 억압만 한 것이  
아니라, 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인 황국신민을 육성하고 일제의 정책에  
순응시키려고 기도했다.

## 7) 일제의 동화정책

일본제국주의는 1910년 조선을 강제병합한 이후에 그 통치방법에 있어서 차별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민족성을 말살하고 일본인화 하려는 강력한 동화정책도  
함께 추진하였다. 식민지에서 탄압과 차별적 정책은 식민지배정책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동화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대표적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  
은 인도를 식민통치하였지만, 인도인 전부를 영국인화 하려는 정책을 취하지는  
않았다.<sup>124)</sup> 프랑스도 식민지를 통치할 때 피식민지인에게 동화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경제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선택적 프랑스인으로 받아들이는 취지  
에서 그쳤다. 그리고 프랑스 식민정책은 1900년을 경계로 자치와 동화를 함께 시  
행하는 ‘연합정책’으로 바뀌었다. 식민지에서 피식민지인들을 완전히 자국민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sup>125)</sup> 즉, 기본적으로 서구 열강들의 통치  
는 경제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식민지배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제는  
조선인의 언어와, 창씨개명 강제, 조선인과 일본인의 동조동근(同祖同根)을 유포  
하여 조선인의 민족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내지인 즉, 완전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sup>126)</sup>

124) 박철희, 「일제강점기 중등교육을 통해 본 차별과 동화교육」,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삶과 민족운동』, 한  
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2005, 86쪽.

125) 김상호,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프랑스인의 타자 인식-1917년~1920년, 르아브르를 중심으로-』, 한국  
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1-14쪽; 구광모, 「창씨개명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國際政治論叢』  
제45집 4호, 2005, 33쪽.

126) 박철희, 위의 책, 86쪽.

일제가 취한 동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아동을 교육시켜 ‘황국신민’으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러한 취지에서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에서는 기본인 일본어와 함께 황국신민의 도덕함양을 기를 수 있는 수신과목을 강조하였다. 이 두 과목은 일제가 학교에서 동화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핵심과목이다.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명시된 ‘교육은 시세(時勢)와 민도(民度)에 적합하게 한다’ 등의 표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국민된 성격의 함양’, ‘국어의 습득 또는 숙달’ 등 동화교육정책은 여전히 주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sup>127)</sup> 즉, 학생들은 이런 과목을 어릴 때부터 주입시켜 ‘천황’에 복종할 수 있는 강력한 이념으로 삼고자 했다. 또한 일제의 정책의 기반에는 조선을 하나의 식민지가 아닌 완전한 일본영토로 삼아 중국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고자 한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일제가 중일전쟁을 개전하면서 본격적인 전시시국이 도래하였다.

일제강점이후 꾸준히 시행된 차별과 동화정책은 본격적으로 그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동화정책이 학교에서도 강력히 시행되고 있음을 본 학적부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학적부는 학교의 교육사정에서 중요한 문서로서 당시 재학중인 학생의 성적을 비롯한 여러 제반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다. 전시상황에서의 조선은 모든 사회적 요소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나갔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순수한 교육목적보다는 앞으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서 학생을 평가하는 시선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학적부에는 앞서 언급한 지방 유력집단의 창씨개명과 취학관계의 상관성과 또 학생의 성행개평(性行概評) 및 신체상황 그리고 포상제도를 통해 일제강점말기의 강력한 동화정책의 실태가 확인된다. 즉, 식민지 동화정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통학교(국민학교)는 식민지 차별과 동화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127) 박철휘, 위의 책, 95쪽.

## IV. 결론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추자지역의 식민지 교육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식민지 교육 실태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추자지역은 유배지로 각인되어 있었고, 유배 지식인들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조선후기에는 전통적인 교육과 함께 구한말의 신학문이 추자지역에 유입되었다. 추자지역의 교육기관은 종래의 전통적인 한문서당과 함께 근대학습기관이 서로 병존했으나, 근대 학습기관이 수적으로 늘어나 추자지역의 교육을 주도하였다.

둘째, 추자지역의 전통교육과는 별도로 일제강점기 추자지역으로 이주한 일본인에 대한 교육은 학교조합과 심상소학교를 통해 진행되었다. 일본인들은 추자지역 영흥리에 흥양학교(興陽學校)를 세우고 ‘제문옥(際問屋)’이라는 매매소를 통해 운영자금을 충당하면서 일본인 학생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 학교는 후일 일본인 공립학교인 추자공립심상소학교로 발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식민지 조선의 교육은 재조선 일본인들을 위한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제주와 추자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제주의 경우에는 일본인 이주어촌이 형성된 4개의 지역에 일본인 학교조합이 설립되고 곧 이어 제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 서귀포공립심상소학교, 성산포공립심상소학교, 추자도공립심상소학교가 설치되었다. 이후 조선인 학교인 공립보통학교들이 설치되었다. 조선인 공립보통학교와 일본인 심상소학교는 그 운영상 차이를 보였다. 우선 학교의 재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인 1학교당 학생 수보다 조선인 공립보통학교의 재학생 수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거주민들이 있는 지역에서 일본인 심상소학교가 먼저 세워지는 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일제당국의 식민지 조선의 교육이 일본인 거주민 위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추자지역도 제주와 마찬가지로 일본인과 조선인 학교의 개교 시기를 달리하여 민족간 분리교육과 교육적 차별이 이루어졌다. 일본인 심상소학교는 학생 수와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학교보다 5년 먼저 세워졌다. 당시 일본

인 재학생 수와 예산 배정액, 교사 수를 비교해 보면 일제당국이 추자지역으로 거주한 일본인 교육에 우선적으로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공립보통학교와 공립심상소학교는 수업연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1926년 현재 제주공립보통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공립보통학교들이 모두 4년제로 출발한 것에 비해 심상소학교의 학제는 모두 기본 6년이며, 제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의 경우에는 고등 2년의 학제를 더 두었다. 이는 일본인 학생이 초등교육 과정을 마치면 상급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1937년 이후 공립보통학교들 중 6년제로 전환되는 학교는 증가했다. 이전까지는 조선인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종결시키면서 상급교육 진학을 어렵게 만들었다. 즉, 조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서 조선인에 대한 교육이 실용적 목적에만 부합하는 저급한 교육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식민지 초등교육은 일본으로의 동화를 목표로 하면서도 동시에 차별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1926년 추자공립심상소학교와 추자공립보통학교의 총비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일본인 주도의 심상소학교에 대한 교육비용이 추자도민 위주의 공립보통학교보다 월등하였다. 즉, 추자공립심상소학교 학생 1인당 경비는 143원이고, 추자공립보통학교의 학생 1인당 경비는 34원으로서 일본인 교육에 대한 경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추자도학교조합의 일부 재임의원들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된다. 학교조합관리자인 니시자키 요시고로(西崎好五郎)을 비롯해 각 의원들이 니시자키 쇼타로(西崎庄太郎), 니시자키 이치사부로(西崎市三郎), 니시자키 가네에몬(西崎兼右衛門)등 모두 ‘니시자키(西崎)’라는 씨명(氏名)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추자도어업조합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니시자키(西崎)’라는 가문이 학교조합 등 여러 조합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일본인 세력이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학교조합이나 어업조합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세력임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학적부를 분석한 결과 졸업생의 이름과 성적, 주소지와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기본적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정의 생활수준과 신체의 상황 등이 남아있어, 당시 학교교육이 학생 개개인과

가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덟째, 일제강점기 일제당국은 지방의 유력자들을 포섭하여 지방행정체계를 이끌었음이 추자지역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들은 지방의 말단관리가 되어 지방에서 일제의 정책을 관철시켰다. 일제말기의 창씨개명정책도 자발적으로 협력 혹은 독려활동을 했는데,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들은 창씨와 함께 개명까지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학적부에서도 이런 모습이 확인되며, 학적부에 나타나는 주요 인사인 新原景□·新原□萊는 추자사회에서 경제력이 상당한 인물로 파악된다. 이들은 주요 지방요직(要職)인 면협의회의 학무위원과 공리(公吏)로서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지대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비교적 높은 경제력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력과 함께 일제당국과 협력 혹은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적부에는 성적에 관련된 기록 말고도 학생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결과기록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학생에 대한 성행개평(性行概評)이다. ‘황국신민단련의 입장에서 종합평정’하는 성행개평은 ‘학내만이 아니라 가정 및 기타 장소에서 아동의 일상생활을 관찰’ 기입하는 기록란이다. 이는 일제말기 전쟁수행으로 인한 노동력 및 병력징발을 위해 학생에 대한 관찰과 감시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을 볼 수 있는 것이 수상(受賞)제도이다. 학생들에게 상은 학업을 진작시키고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제말기의 학교는 수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황국사관을 고취시켰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경영할 때 차별과 동화정책을 같이 시행했는데, 이 정책은 학교에서도 적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만으로 일제강점기 추자 지역의 교육적 상황을 모두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자료를 보충하여 식민지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도서지역에 대한 일제 식민지교육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조선총독부, 「소화원년도 추자도학교조합 세입출결산 보고의 건(昭和元年度楸子島學校組合稅入出缺算報告ノ件)」, 1926.

『조선총독부 관보』

『신양초등학교 연혁지』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학적부(1925~1940)』

「황성신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2. 단행본

강동식·강영훈·황경수, 『일제강점기 제주지방 행정사』, 제주발전연구원, 도서출판 가이드, 2009.

고려대학교 한국사 연구소 일제시대사 연구실,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의 지방제도 관계법령 비교자료집』, 한성인쇄, 선인, 20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0 전치체제와 민족운동』, 탐구당, 2003.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연구입문』, 민속원, 200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제의 친일파 육성파 반민족 세력』, 경인문화사, 200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8, 경인문화사, 200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5, 경인문화사, 200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2004.

요시다 에이사부로(吉田英三郎), 『한국지리풍속지총서』 3, 일한인쇄주식회사 간행, 경인문화사 영인, 200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혜안, 2004.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한국지리풍속지총서』 370, 조선총독부인쇄국 간행, 경인문

- 화사 영인, 2005.
- 제주도, 『조선총독부 관보중 제주록』, 1995.
-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7.
- \_\_\_\_\_, 『濟州島勢要覽』, 1939.
- 제주도청, 『한국지리풍속지총서 100』, 조선인쇄주식회사 간행, 경인문화사 영인, 1939.
- 제주도교육사편찬위원회, 『濟州教育史』, 제주도교육위원회, 1979.
-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199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경신인쇄사, 2011.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추자도 학술 조사 보고서』, 2006.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자료집·일본신문이 보도한 제주도』, 제주도, 2006.
-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1994.
-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제주도생활상태조사』, 제주시우당도서관 영인, 경신인쇄사, 2002.
-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저, 최석영 해제, 『한국근대 민속·인류학자료대계』, 민속원 영인, 2008.
-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전남 무안군 망운지역 농촌사회구조변동연구』, 1988.
- 한국사연구회,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下, 지식산업사, 2008.
- 車輶權, 『韓國地方財政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4.
-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1999.
- 최석영,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 권력』, 서경문화사, 1999.
- 양진건, 『제주교육행정사』, 탐라문화, 2001.
- 이만규, 『조선교육사Ⅱ』, 거름신서 35, 거름, 1988.
- 여박동,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 형성』, 한국일본학협회, 보고서, 2002.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삶과 민족운동』, 景仁文化社, 2005,

### 3. 연구논문

- 구광모, 「창씨개명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國際政治論叢』 제45집 4호, 2005.
- 金東柱, 「濟州人の 3·1運動 과 그 영향」, 『耽羅文化』 16호, 1996.
- 김동환, 「제천공립보통학교 초기 졸업생의 취업 및 사회활동의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적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제12권, 2002.
- \_\_\_\_\_, 「근대 지역교육운동의 주도세력에 대한 일고찰」, 『한국교육사학』 제24권 제1호, 한국교육사학회, 2002.
- 박균섭, 「창씨개명의 장면 분석과 교육사 서술」,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6.
- 송지영, 「일제시기 부산부의 학교비와 학교조합의 재정」, 『역사와 경계』 55, 2005.
- 양진건, 「日帝下 濟州島 學校設立運動」, 『耽羅文化』 제2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2004.
- \_\_\_\_\_, 「日帝下 濟州島 教育史 研究」, 『한국교육사학』 제19집,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1997.
- 이경숙, 「학적부 분석: 일제말기 학교가 기록한 ‘국민학생’의 삶, 희망, 현실」, 『교육철학』 제31집, 2007.
- \_\_\_\_\_, 「모범인간의 탄생과 유통: 일제시대 학적부 분석」, 『한국교육』 34, 2007
- 이대화, 「‘창씨개명’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승실사학』 제26집, 2011.
- 이송희,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의 초등교육」, 『지역과 역사』 19호, 2006.
- \_\_\_\_\_,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교조합 설립규모」, 『사림』 제22호, 2004.
- 이준식, 「일제강점기 군산에서의 유력자집단의 추이와 활동」, 『東方學志』, 2005.
- 최길성, 「미신타파에 관한 일 고찰」, 『한국민속학』 7, 한국민속학회, 1974.
- 최재성, 「‘창씨개명’과 친일 조선인의 협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7집, 2010.

#### 4. 학위논문

- 강만익, 「일제시기 제주도 마을共同牧場組合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고행미, 「추자도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특징」,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상호, 「알제리 이주민에 대한 프랑스인의 타자 인식-1917년~1920년, 르아브르를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수희, 「朝鮮植民地漁業と日本人漁業移民」, 東京經濟大學 박사학위논문, 1996.
- 김지순, 「학적부에 나타난 1910년대 통영공립보통학교의 학생생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길민정, 「한말·일제초 인천지역 초등교육의 도입과 전개-인천사립영화학교와 인천공립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명재림, 「日帝強占期 楸子島의 漁民抗爭」,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문창규,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기관의 형성」,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朴成淑, 「日帝의 「國民精神總動員運動」의 性格에 關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송애천, 「일제시기 공립학교의 재정과 운영-부산부의 학교비와 학교조합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기복, 「일제하 ‘水産博覽會’ 와 조선 수산업의 동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정선영,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조영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변천과정」,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코노 노보카주, 「韓末·日帝下 일본인의 朝鮮水産業 진출과 자본축적-中部幾次郎의 ‘林兼商店’ 경영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한선애, 「日帝時期 忠南 洪城郡의 高等普通學校設立運動」,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그림 2>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및 신양국민학교 학적부(1939~1946)

備考	第六學年	第五學年	第四學年	第三學年	第二學年	第一學年	學年		身修	本籍	住所	生年月日	氏兒名童		
							學	科					名	童	
									方讀	國語					
								方綴							
								方書							
								方話							
									術算	學業成績					
									史國						
									理地						
									科理						
									業職						
									畫圖						
									工手						
									歌唱						
									操體						
									事家						
									縫裁						
									語鮮朝						
									點總						
									約通						
									行操						
									次席						
									年修	者護保					
									月了						
									日ノ	ノ兒 關童 係卜					
									概評						
									數日席出	在學中ノ出席及缺席					
									氣病						
									故事						
									數日引忌						
									概評						
									印任擔級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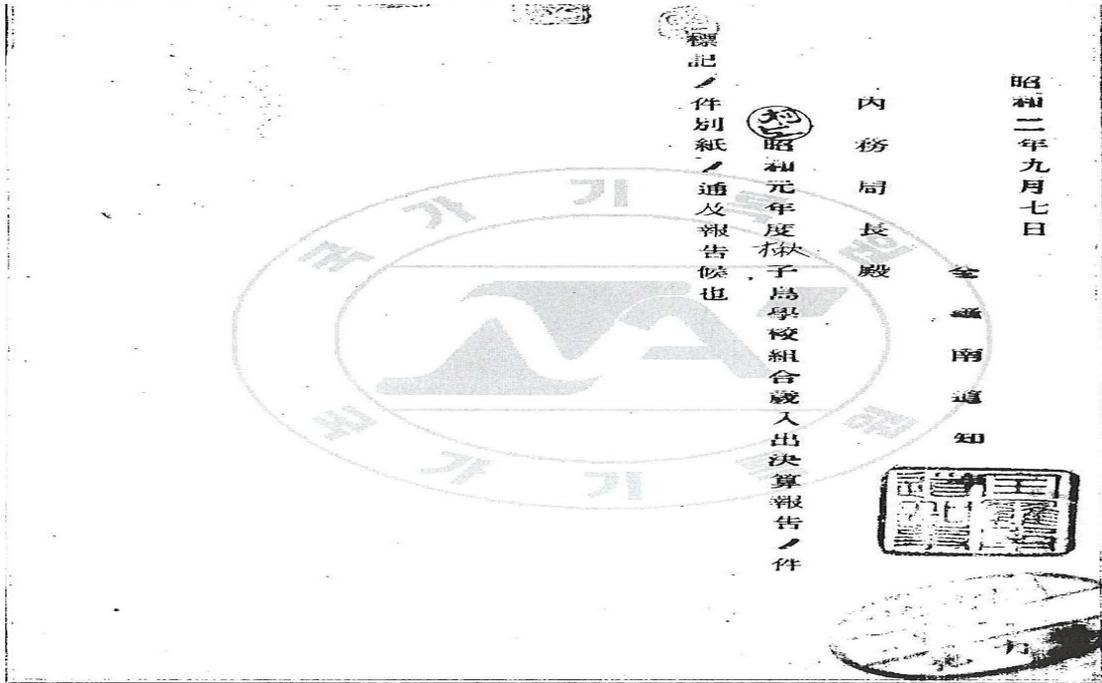
<그림 3> 추자공립보통학교 분교 16회 및 신양국민학교 1회 학적부  
부기표(1938~1941)

環 境	境 環 庭 家							見所ノ其及況狀ノ體身				評 概 行 性							事項 學年		
	性家 族 行ノ	度程ノ育教				全。教育ニ 對スル關心	職保護者ノ 業ノ	家 族	所 見	原 因	ノ身體 狀發 況達	狀身 體ノ 況	容 姿	動 作	言 語	嗜趣 好味	異障 害常及	惡 癖		才 幹	性 格
		姉妹	兄弟	母	父																
						熱心、稍熱心、普通、稍 不熱心		祖父母、父、母、兄、 姉、弟				最良、稍良、普通、稍不 良、不良							記憶、理解、觀察、工 夫、根氣、 盜、浪費、放浪、虛言		第一學年
																					第二學年
																					第三學年
																					第四學年
																					第五學年
																					第六學年

<그림 4> 신양국민학교 2, 3회 학적부 부기표(1941~1946)

境 環 庭 家		見所ノ其及況狀ノ體身	評 概 行 性	
				第一學年
				第二學年
				第三學年
				第四學年
見 所 ノ 其 及 望 志				
見 所	望志ノ職選學進			
				第五學年
				第六學年

<그림 5> 소화원년도 추자도학교조합 세입출결예산보고의 건(1926)



<p>大正十五年昭和一元度嶺子島學校組合歲入出決算報告ノ件</p>	<p>歲入</p> <p>全計計四萬五千四百八十元</p> <p>歲入決算額</p>	<p>歲出</p> <p>全計計三萬九千五百元</p> <p>歲出決算額</p>	<p>歲計剩餘金</p> <p>全計計六千九百八十元</p>
-----------------------------------	--	--	--------------------------------

大正拾五年昭和三十二年度嶺島學校組合歲入歲出總算

科		歲入		歲出		附記	
項目	金額	金額	金額	金額	金額	金額	金額
一 組合費	332.80	332.80	332.80	332.80			
二 使用料及 二 雜費	326.10	326.10	326.10	326.10			
三 保費	61.50	61.50	61.50	61.50			
四 補助金	13.00	13.00	13.00	13.00			
五 附金	44.45	44.45	44.45	44.45			
六 總計	888.85	888.85	888.85	888.85			
七 雜收入	33.00	33.00	33.00	33.00			
八 歲入合計	921.85	921.85	921.85	921.85			
九 歲出合計	921.85	921.85	921.85	921.85			
十 附記							

科		歲入		歲出		附記	
項目	金額	金額	金額	金額	金額	金額	金額
一 雜費	56.00	56.00	56.00	56.00			
二 雜收入	10.00	10.00	10.00	10.00			
三 歲入合計	66.00	66.00	66.00	66.00			
四 歲出合計	66.00	66.00	66.00	66.00			
五 附記							





嶺子島學校組任會議錄

一開會場所嶺子島學校組任事務下  
二開會及閉會日時

開會 昭和廿六年六月二十日午後三時  
閉會 昭和廿六年六月二十日午後四時四十分

三出席者氏名

- 一 田下 村彦之
- 二 番 西崎 庄太郎
- 三 番 飯沼 三次郎
- 四 番 澤田 礼之祐
- 五 番 西崎 市三郎
- 六 番 久 貞

四 會議之其の他但合更員

管理者西崎好五郎書記西崎庄太郎  
議事二件名及說明之要領  
大正十五年昭和元年度決算(決算算認定中)

嶺子島學校組任

說明之要領管理者前より配付之票より決算表及  
同說明書より詳細説明する其要領は如し  
一 歳入 一 部は前年度より大増し生計の不振により  
如く特別授業料増額金補助金類利息等ノ科目ニ  
レテ特別増額一時庶務者多クノ故ニシテ授業料又  
一時中絶ノ學者ありシ故ニ増額金前年度計  
剩余金よりノ故ニ補助金ニ地方費補助金四回  
減額ニシテ増額補助金清シク補助増額よりレシ  
依リ減額金利息ノ前年度剩余金比較的多クシカガ  
増額金よりシテ其他の減額金計及同説明書記載  
ノ面より

歳入 一部は前年度より大増し生計の不振により  
項修諸費は若干少額 修業費若干少額 修業費若干少額

中道に更なる準備費より支出を其他ハハハハ  
前年より若干少額 修業費若干少額 修業費若干少額  
給付年度最初より自修費若干少額 修業費若干少額  
シテ修業費減額之故よりシテ他ハ決算表附記及同説明  
書より記載シテ面より若干少額 修業費若干少額

管理者以上より説明する決議所定ノ年長者議員

議長より若干少額 修業費若干少額 修業費若干少額

大各議員協議修業費及修業費若干少額 修業費若干少額

決議決修業費及修業費若干少額 修業費若干少額

嶺子島學校組任

一 面より認定之賛成シテ若干少額 修業費若干少額  
定之宣シテ決議長は管理管理者より通告  
一 閉會 管理管理者議長より原案可決確定ノ通告文  
字より依り本日の議事終了ニ付し四若名議員より  
議長に議長ハ一審及三審議員に通告同議長  
承認を得し同議長は若干少額 修業費若干少額  
宣す

嶺子島學校組任管理者西崎好五郎  
四若名議員 下村彦之  
西崎庄太郎

右本日の議事  
嶺子島學校組任管理者西崎好五郎



## Abstract

# Colonial education shown through school registers of Chuja elementary school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Kim, young-min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ruth of response pattern of residents in Chuja area through educational materials of Chuja public elementary school and Chuja Simsang elementary school against colonial education in Japanese migrant fishing village formed in Chuja area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Education in Korea was focused on Japanese language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it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ethnic segregation education including <those who use Japanese language> and <those who do not use Japanese language>. This education discrimination clearly appeared in the period of establishment of school and financial issues. 'Korea education ordinance' promo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the terminal education to limit the education of Koreans to elementary school. Ultimately, it aimed at cultivate 'loyal subjects of Japanese empire' being pursued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refore, education of Koreans was made with the inferior terminal education and ambivalent structures such as discrimination and assimilation of cultivation of

‘loyal subjects of Japanese empire’ were made.

Chuja area in Joseon Dynasty was stamped as a place of exile but the education was made by intellectuals who were banished. As new learning was gradually introduced, new education began newly. In contrast to these social backgrounds, as the Japanese colonial era began, Japanese migrant fishing village was formed in Chuja area. The installation of modern educational institutions requested by Japanese immigrants brought the establishment of Japanese public Simsang elementary school and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ethnic segregation education were mad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public elementary school responding to changes in Chuja society was made as the effort to overcome the actual situation.

Looking at situation of ethnic segregation education of Japanese Simsang and Korean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Chuja area, the discriminative aspects in establishment of Japanese school with priority, school system and school expense were exhibited. Among some members of school union established by the Japanese, a group of those who had a last name of ‘Nishizaki’ exerted the strong influence in Chuja society through Chuja island fishermen’s association and school association. They influenced the education of Chuja society enormously as much as it was confirmed that they served as the actual subject of the discrimination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 actual situation of education in Chuja society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through analysis of school registers of Korean Chuja elementary school was identified. Graduates’ name, grade, address, personal information on parents, living level of family and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ere identified in school registers. It was confirmed that school education at the time affected individual students and family. Especially, it was confirmed that Japanese authorities won local influential people in Chuja area and affected the school education. Local prominent figures tended to sympathize with policy of Japanese authorities or voluntarily take part in it in terms of

issues of entering school.

Another feature of school registers was the various evaluations about students. They utilized assessments on students'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and award system, which was the example to demonstrate that they acquired the human resource as the main purpose of governing Korea. School observed and monitored whether students were appropriate for soldiers to conduct the war or workers through assessments on students. They stressed importance to inspire the view of history of Japanese empire by evaluating whether they were qualified for citizens of Japanese empire and actively utilizing awards to students who were suitable to the target.

As abov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Japanese school was established and Korean school was established as the countermeasure in Chuja area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It was confirmed that colonial education discrimination in various forms were made by the influential people. It was also confirmed that education policy of Japanese empire was extensively and carefully developed, and it was implemented deliberately and systematically as much as it was spread into islands.